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믿음과 소망



사랑의 추모공원



크리스찬의 성지

그리운 당신에게 보내는
따스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마음 하늘에 띄워 천국에 닿기를...

아빠, 우리 걱정은 하지 마.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을 부족함 없이
아름답게 채워 주실 테니까.
정말 많이 보고 싶고 소중한 우리 아빠,
이 모든 슬픔 다 지나간 후 아름다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날을 소망하며 정말 많이 사랑해! 우리 아빠!
- 본문 중에서 -

0 3 2 3 0
값 10,000원
ISBN 978-89-8304-069-5

천국으로 보내는 그리움의 조각들 | 세 번째 이야기 |

(재)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

| 세 번째 이야기 |

천국으로 보내는 그리움의 조각들



그리움으로
꼭꼭 눌러쓴 편지에
사랑의 향기를 담아
마음 하늘에 띄워 본다.

 (재)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
Christian Memorial Park



국가브랜드 대상 5회 연속 수상

365일
연중무휴 운영
방안규모
총 39,122기



(재)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
Christian Memorial Park

늘 찾고 싶은 빛과 평안의 안식처

(재)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
최고의 보안 및 편의시설로

고인에겐 품위있는 안식을
가족에겐 편안함을 드리는

크리스찬의 성지입니다.



KMB Christianity Brand Award

국민일보 주최
제1회 기독교브랜드대상 (사회공헌) 수상

| 세 번째 이야기 |

천국으로 보내는 그리움의 조각들

| 세 번째 이야기 |

천국으로 보내는 그리움의 조각들



그리움으로
꼭꼭 눌러쓴 편지에
사랑의 향기를 담아
마음 하늘에 띄워 본다.



(재)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
Christian Memorial Park



『천국으로 보내는 그리움의 조각들』 세 번째 이야기를 발간하며

할렐루야!

길고 지루했던 코로나19 사태가 엔데믹을 선언한 뒤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재단법인 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는 2년 만에 유가족들의 사연을 엮어, 『천국으로 보내는 그리움의 조각들』 세 번째 이야기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책에는 지난봄, 추모의 글 공모를 통해 응모된 작품 중,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10개 작품과 2022년 선정작 20편, 총 30편이 담겨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한복음 11:25-2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슬픈 결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시작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죽음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임을 다시금 상기해 봅니다. 그런 희망과 사랑, 그리움이 담긴 메시지가 유가족들의 글에 담겨있습니다.

이 글들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힘을 북돋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이번 책이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는 도구가 되길 기도하며, 각각의 이야기가 모두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유가족분들의 그리움의 크기가 하나의 종이, 몇 개의 문장으로 축약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친 이 소중한 글들이 독자 여러분께 특별한 감동을 전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정된 작품들을 통해 고인들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충분히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올해 창립 제19주년을 맞이하는 재단법인 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는 5년 연속 국가브랜드대상(사회공헌부문) 및 기독교브랜드대상(사회공헌부문)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자주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추모공원, 유족들에게 평안과 천국 소망으로 가득 채워드릴 수 있는 추모공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재)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 이사장 **신범섭**

Contents

『천국으로 보내는 그리움의 조각들』 '세 번째 이야기'를 발간하며 신범섭	4
---	---

Part 1 시에 그린 그리움, 하늘에 닿다

모든 평안과 확신과 위로의 근거 김진주 소망상 2022	10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재용 믿음상 2022	16
숨결 이수혜 믿음상 2022	21
30년 만에 엄마에게 쓰는 편지 김상진 믿음상 2022	25
모든 것에 네가 있다 엄기홍 화평상 2022	30
그리운 당신에게... 김충자 화평상 2022	32
주말농장에서 어머니를 뵙고 김영천 화평상 2022	35
사모곡 허경강 믿음상 2023	38

Part 2 글에 새긴 그리움, 천국에 닿다

엄마, 사랑해! 이빠! 나 사랑해? 김태우 사랑상 2022	42
풍류가객, 성령총만 임채순 장로님! 임혜선 소망상 2022	49
하늘나라 아내에게 보내는 봄 편지 전상열 소망상 2022	56
매일매일의 삶이 당신과 함께이길 손현영 믿음상 2022	59
올해도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순자 믿음상 2022	63
보고 싶은 당신에게 이명순 화평상 2022	67
마지막 편지 김혜영 화평상 2022	70

천국에 계신 사랑하는 나의 아버님 신애득 화평상 2022	74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늦게 데려가 주세요... 김재광 화평상 2022	77
사랑하는 어머니~ 김은영 화평상 2022	81
하늘나라에선 엄마가 안 아프니까 너무 좋아 김효진 화평상 2022	85
할머니의 사랑! 성주희 화평상 2022	88
봄의 단상(斷想) 조혜경 화평상 2022	93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 사랑상 김진주 2023	96
아빠에게 보내는 둘째 딸의 그림 편지 신미진 소망상 2023	100
이스라엘에서 막내딸이 띄우는 편지 성은주 소망상 2023	106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엄마 문일주 소망상 2023	109
남편을 그리워하는 내 마음의 강산아! 현기숙 믿음상 2023	112
“걱정 마라. 잘될 거야” 김인순 믿음상 2023	115
엄마의 봄 소풍 김지현 믿음상 2023	118
우리의 선지자 엄마, 사랑합니다 성은숙 믿음상 2023	121
엄마에게 김미현 믿음상 2023	126
심사평(2022) 김선옥·이우돈	130
심사평(2023) 김선옥·전용선	133



Part 1

시에 그린
그리움,
하늘에 닿다



모든 평안과 확신과 위로의 근거

 소망상 김진주

아빠가 천국에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천국은 더 이상 희미한 곳이 아니라,
너무 기다려지는 영원한 집이 되었으니까요.

아빠가 천국에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어요.
곁에 있는 우리 서로가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천국에 있기에
우리는 흑암 중에도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빛 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니까요.

아빠가 천국에 있기에
우리의 아픔도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영혼을 보듬어 주고
안아줄 수 있으니까요.

아빠가 천국에 있기에
우리는 돌보심을 받을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빠의 자리를 대신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니까요.

아빠가 천국에 있기에
우리의 모든 눈물은 낭비되지 않을 거예요.
인격적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아빠가 천국에 있기에
우린 오늘도 용기 낼 수 있어요.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요.

아빠가 천국에 있기에
우린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믿는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니,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릴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테니까요.

아빠가 천국에 있기에
우린 힘들어도 웃을 수 있어요.
결코 헤어짐 없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 주실 테니까요.

아빠가 천국에 있기에
우린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영원한 쉼을 얻을 테니까요.

아빠가 천국에 있기에
우린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네가 끝까지 충성했다고,
우리 모두 칭찬과 격려 아낌없이 받을 테니까요.
그러므로 아빠가 천국에 있기에
우린 그날만을 가슴 깊이 사모할 수 있어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이들과 함께,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영원토록 평안과 기쁨 누리며 살 테니까요.

그러니 아빠가 천국에 있을 수 있음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음도,
슬픔 속에서 다시 용기낼 수 있음도,
우리가 먼 훗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음도,
결국엔 우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 덕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우린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설교를 마치고
아빠가 작별 인사 하나 없이
갑작스레 천국으로 떠났을 때,
우린 믿을 수 없었고 너무나 슬펐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확신할 거예요.
아빠는 어차피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았기에,
우리에게 작별 인사는 필요하지 않았을 거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평안과 확신과
위로의 근거가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천국을 얼마나 소망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우리가 당한 모든 것조차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렇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우릴 향한 하나님의 사랑엔 어떤 부족함도 없었음을,
어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항상 지키셨음을,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릴 위한 가장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의 모든 서러움을 영원한 기쁨으로 뒤바꿔 주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맡기기에
가장 충분한 분이셨음을
온 마음 다해 감사로 찬양할 그날을 소망할게요.

지금은 희미해도 언젠가 가장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그 찬란한 재회를 기대하며…
아빠! 우리가 정말 많이 사랑해요!

아빠의 천국 10주년을 기념하며
김구도 목사의 가족, 엄마 은영, 딸 진주, 현주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믿음상 이재웅

묵묵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 긴 세월들을
어떻게 홀로 외롭게 견디셨는지요?

그저 철이 없어 무관심하게
아버지의 어깨에 의지한 채 긴 시간들을
불평만 하며 보냈었던 저희들을 보시고 속상했을 텐데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지요?

어느덧 저희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식들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자리에 서 보니
그렇게 야속했던 아버지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어깨를 바라보는 나이가 된 저희들이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게 되었는데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외롭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도 못한 채
길을 잃어버리시는 아버지를
자주 찾아 나서게 되는 낯선 시간들이,
우리 가족에게 오지 말았으면 했던 일들이,
피하고 싶은 일들이 다가오게 되네요.

남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말없이 흐느껴 우시던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록 당신의 용변을 닦아 드리지만,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들을 의지하는 게 느껴져서 힘들었지만
웃으시는 아버지를 보니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시간들이 서서히 쌓여
지치고 지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저희들의 무능으로
당신을 홀로 또 보내야 했던 게

아직도 가슴 깊은 곳이 메어집니다.

저희들이 아버지를 또 외로움에 버려둔 것이 아닌지
그날을 생각하면 울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점점 당신을 찾아도 못 알아보시는 모습에
당황스럽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래도 슬픔과 기쁨이 함께 오는가 봅니다.
정말 사랑했다고 말을 못 전한 것보다도
그렇게 꿈에서 그리던 주의 품에 돌아와 주를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위로가 저희 가족에게도 찾아오네요.

저희들은 기쁘고 행복해하시는 당신의 웃음을 보면서
믿기 어려운 주님의 크신 사랑에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례도 받으시고
당신의 고백으로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아버지 모습을 슬프고 기쁘게도
또한 아쉽게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허락하신 은혜 안에

주와 동행하시는 아버지를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멋진 저희들의 아버지
영원한 안식처에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시죠?

그립도록 보고 싶지만 좋은 곳에서
웃고 계실 아버지를 생각하며
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크신 주의 은혜”

광야에서 흘리는 내 눈물이
주가 만드시는 반석의 샘물이 되기를
절망 속에 내쉬는 한숨들이
주가 베푸시는 하늘 아래 만나가 되기를
기밀 곳 없는 죄 많은 이 몸이
주가 물 주시는 포도 가지 열매가 되기를
של 곳 없어 버려지고 상한 내 심령이
주가 깨우시는 베다니 나사로이기를
헤매이다 지쳐 쓰러진 내 영혼이
주가 건지시는 골짜기의 저 양이기를

두려움에 멈춰 서 있는 나의 길이
주가 부르시는 로렘 나무 아래이기를
바람들이 무너져 버린 내 소망이
주가 안으시는 어린아이 미소가 되기를
바람처럼 붙들 수 없던 세월들을
주는 아시나니 모든 것이 주의 것 되기를



숨결

 믿음상 이수혜

오늘도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창문을 열고 한껏 들이마신 공기는

따스함의 꽃향기가 전달되는 듯 봄이 왔음을 알려주고
바람에 춤을 추듯 훑날리는 벚꽃 잎은 마치 하얀 눈처럼
아름다움의 황홀함을 느끼던 순간...

황홀함 속에 들이마신 숨결 속에서

당신이 휠체어를 타고 한강 나들이를 가며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을 말없이 바라만 보고
깊은 한숨을 쉬었던
당신의 아픈 숨결을 되뇌어 봅니다.

오늘도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툭툭 두드리고,

작은 빗방울이 창문에 대롱대롱 매달려 같이 놀자고 하며

창문을 열고 빗 내음에 입가에 살짝 미소가 지어졌던 순간...

깜깜한 새벽 머리가 아프다며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해달라고 하던

당신의 불안한 숨결에 두 손을 꼬옥 잡고

빗소리를 들으며 슬프게 기도하던

당신의 아픈 숨결을 되뇌어 봅니다.

오늘도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하하호호 웃음소리와 함께 우리 집 꼬맹이의 재롱에

박수 치고 많이 컸다며 감탄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행복을 배로 만들어 나누던 순간...

손녀의 재롱에 활짝 웃으면서도

내가 언제까지 내 손녀를 볼 수 있을까

슬픈 마음에 굵은 눈물로 마음을 쿵쿵쿵 쿵 치듯 아파하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던 당신의 아픈 숨결을 되뇌어 봅니다.

오늘도

나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한다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지점까지

열심으로 달리며 땀을 흘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내가 해냈다고 뿌듯함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순간...

몸에 찾아온 경련에 두려움을 느끼고,

침대에 누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을 맞추고 손을 꼬옥 잡은 채 손으로 마음을 나누며

아프고 고통스러움을 이겨보려 거친 숨을 몰아쉬던

당신의 아픈 숨결을 되뇌어 봅니다.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당신이 나의 아빠로... 그저 어린 나에게 사랑의 숨결로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주셨다는 걸...

얼마나 많은 숨결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나를 안고 기뻐하며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기뻐했을 당신의 숨결을...
가족들을 위해 열심으로 일하며, 더욱 잘하기 위해
노력했던 당신의 숨결을...

뒤늦게 당신의 아픈 숨결을 느끼고서야
그 숨결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마지막 숨결...
조금이라도 당신의 숨결을 느끼고 싶어 간절함으로 울부짖고,
당신의 손을 잡고, 당신을 부둥켜안고 기도하며
헤어지기 힘들었던 그 순간...

당신의 마지막 숨결이... 뱉어질 때...

깊이 고백했던...
사랑합니다, 당신...
고맙습니다, 당신...

어디서든...
저는 오늘도 당신을 생각합니다.



30년 만에 엄마에게 쓰는 편지

 믿음상 김상진

엄마! 잘 지냈어?
나도 엄마 덕분에 잘 지냈어.
여기 오산리 참 좋지?
엄마 좋아하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곳.
작년에 가장 잘한 일은 강원도 산골에 홀로 있던
엄마를 이곳으로 모셔 온 거야.

엄마! 아버지 만나 봤어?
작년에 엄마 곁으로 가셨는데...
30년 만에 만남이라 어색하지는 않았는지?
그래도 한눈에 알아보셨지?
아버지한테 그동안 밀린 얘기 많이 들었어?

엄마는 누나랑 나밖에 모르는데,
사위랑 며느리 그리고 5명의 손자들 얘기...
아버지 자랑하시지 않아?
아버지 비행기 타고 중국이랑 제주도랑 가보셨는데,
배 타고 울릉도랑 마라도도 가보셨고,
금강산도 가보셨다!

그런데, 엄마...!
지금 생각하니까 여기저기 많이 모시고 다녔는데,
정말 좋으셨을까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엄마가 없었으니까...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들 다 있어도,
엄마 한 사람만 하겠냐고!
엄마 3년 넘게 아프다가 가셨잖아.
장례식 날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
엄마 춤지 않게 잘 덮어달라고 하시던...
평생 엄마 고생만 시키다가 보내셨다고
아버지 원망도 했었는데,
그래도 아버지 엄마 정말 많이 사랑하셨나 봐.
30년을 아버지 혼자 사셨으니까...

엄마! 아버지 꼭 안아주라.
엄마 가시고 아버지 참 열심히 사셨거든.
나 훈련소 가고, 어렵게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아버지 혼자 딸도 시집보내고, 아들도 장가보내고...
손자들 태어나고, 백일잔치랑 돌잔치도 치르고,
학교 가고, 군대 가고...
그때마다 말은 안 해도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
아버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버지 가시니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이 들었어.

엄마! 아버지 허리랑 다리 아픈 거 아시잖아?
젊을 때 산에 통나무 자르다가 다치셨다면...
그렇게 허리 다리 아픈데도,
두릅이랑 곰취랑 산나물 뜯어 신문지에 고이 싸 오시고
도라지도 캐서 껍질 벗겨
하얗게 말려 싸 오시던 아버지...!
계절 바뀔 때마다 그 아버지의 손길이 생각나고 감사해.

엄마! 아버지 다리 너무 아파하셔서
인공관절 수술도 받으셨거든...
어렵게 재활하셨는데,

다른 데가 아파서 많이 사용 못 해서 너무 아쉬웠어.
안 아프게 마음껏 걸어 다니길 바랐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허리 다리 아파서 몇 번을
길가에 앉아 쉬면서도 교회 열심히 다니셨다.
엄마가 어렵게 만난 하나님을
엄마 가시고서야 열심을 내셨지.
엄마 가시고 얼마 안 돼 새벽에 잠이 깬는데,
아버지가 뭔가 증얼거리시는 거야
그래서 조용히 귀 기울여 봤더니
누나랑 날 위해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던지...

엄마! 어느덧 내 나이가 50이래.
엄마가 내 곁을 떠나던 나이가 되어버렸네.
아들은 그때 내 나이가 되고...
오랜만에 아버지 만나서 많은 얘기도 하고,
두 분이서 손잡고 산책도 하고 그러시죠?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많이 많이 행복하길 바라요.
나도 두 분이 열심히 살아오신 만큼 열심히 살게요.
엄마한테 자랑할 것도 많은데...

엄마 며느리랑 손자랑 손녀랑...
아~ 우리 엄마 어떻게 변했을까 궁금하다~

엄마~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이 평생 고생만 하다 가셨지만,
세상은 엄마의 향기로 가득해요~
엄마의 삶을 기억하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들로 인해...

오늘도 남겨진 저희들은 엄마와 다시 만날
소망의 아침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게요.
사랑해요~ 엄마~



모든 것에 네가 있다

 화평상 엄기홍

울컥 밀려오는 생각에
입은 막아지고 눈물은 흐른다.

컴퓨터 앞에 보여지는 화면에
작은 아이의 얼굴에도, 건장한 청년의 얼굴에도
영화 예고편 동영상에도

길을 가며 엄마의 손을 잡고 가는 아이의
환한 미소에도, 찡그린 주름에도
꽉 잡은 도톰한 손등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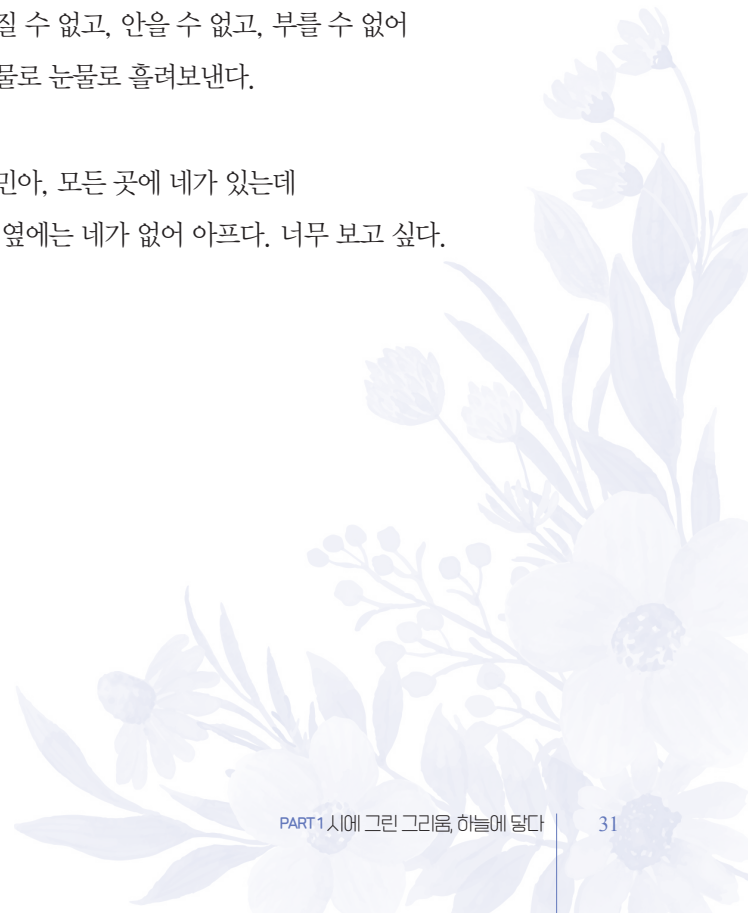
한 번도 본 적 없고 만난 적 없었는데

모두가 네가 된다.

뒤늦게 핀 장미꽃도 너와 보고 싶고
통통 튀는 농구공을 너와 주고받고 싶고
바람 속에 달려가는 자전거를 너와 함께 타고 싶다.

모든 것에 네가 있는데
만질 수 없고, 안을 수 없고, 부를 수 없어
눈물로 눈물로 흘려보낸다.

성민아, 모든 곳에 네가 있는데
내 옆에는 네가 없어 아프다. 너무 보고 싶다.





그리운 당신에게...

 화평상 김충자

여보! 작년 8월에 검정고시로 중학교 졸업하고,
올해 오늘 고등학교 시험까지 치렀다오.
당신 살아계실 때 늘 말했었지.
장사 접게 되면 기필코 당신이 나서서
나 학교 다니게 해 주겠다고...
나는 당신도 같이 도전해 보자고 했었고...

당신이 천국으로 가시고 나서 그해 겨울은 우느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오.
추운 줄도 모르고 밥 먹다 울고, 자다가 울고,
길 가며 울고, TV 보며 박장대소하다가도 울고,
누군가와 말하다가 당신 생각에 글썽해져서

눈 감아 버리고, 엄살로도 울고 그랬는데...
올겨울은 그냥 춥더이다.
푸근한 날씨 연속인데 난 추워서 오들오들 떨었지.
내 몸속 수분이 눈물이 되어 다 날아가 버린 것처럼
바삭바삭해진 감정에 춥더이다.
매트 온도 잔뜩 올려놓고 몸을 지저도...
그래도 오그라들게 추운 겨울을 보내고...
이제 꽃 피는 새봄은 여지없이 또 오더이다.

시험에 합격했노라 통지는 아직 안 받았으나
합격된 마음처럼 넉넉해져서
우리 아이들 불러 한턱 톡톡히 냈다오.
꼭 하고 싶어서 한 공부라기보다 당신 가신 마당에
당신 없는 세월을 이겨보자고 한 공부였기에
열심에 열심을 더했고...
수학 공식을 가르쳐 주는 예찬이와
영어 단어를 꼭 외우라며
선생님 역할놀이엔 재미 붙인 예람이,
또 딸 내외의 요모조모 보살피는 마음을 달갑게 받으며...
나 혼자 호사를 누리는 것 같아서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다오.

아직은 당신의 영정사진에 눈 맞추어 바라보지 못하지만
지난여름 폭우를 흠뻑 맞으며 당신을 추억해 보았지만
내가 걷고 있는 이 길도 당신 계신 그곳을 향하고 있기에
눈물 나면 눈물 흘리고
행복하면 함박웃음 웃고
그러 저리 살다가 당신 만나려 하오.

당신은 천국에서 늙지도 말고 잘 계시구려.
내 모습이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보면
내가 당신을 알아보고 다가가리이다.
지난 세월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당신을 사랑했다고. 결국은 사랑이었다오.
당신을 만나서 아무것도 없던 나에게
주렁주렁 열매가 열리고 토실토실 영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당신과 짝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문득 시선이 당신 사진에 머물 때 또 쓰리이다.
그리운 당신께...



주말농장에서 어머님을 뵈고

 화평상 김영천

나 세상에 태어나
농장 주인 되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다섯 평 주말농장.

먼 남쪽 고향 어머니의 거칠었던 대지가
주말농장에 가득 파도쳐 옵니다.

논밭 갈아 씨 뿌려 풀 뽑고...
새벽부터 디딜방아, 빈 독은 늘 깊고,
이마를 흠쳐 먼 샘물 이어다가
술 연기(松煙)에 보리 밥술 보글보글,
오밀조밀한 살강, 금 벌어진 빨랫방망이

땀 씻을 틈도 없는 풍상(風霜)들이었지요.

비좁은 방에 만며느리,

집안 제사 생일이며

7남매 낳아 가르치고 짝 찾아 주고,

황소 강아지 토끼 돼지 새끼 고양이 새벽닭 텃밭에 참새,

집안이 온통 시끌벅신했지요.

창밖에 눈바람, 베들 위에 북소리로 밤이 깊고,

무명실 명주실 뽑아내어 베를 짜서

오일장에 나서면 흥정은 지루했지요.

이곳저곳 정화수, 얼마나 맑고 싶었습니까.

앉을 짬 없던 83년

가느다란 허리로 어찌 그 짐들을

다 저 내셨단 말입니까?

돌아가신 읍내 병원,

평생에 두 번째 입원이었지요.

홀연히 떠나시는 순간, 임종도 못 해 드렸습니다.

다섯 평 밭고랑 그 깊이를 몰랐습니다.

선비(先妣)를,

어머님과 께안고 울고 보름달로 함께 웃던

옆집 아주머니들을,

하릴없는 나 자신을,

오늘 대면합니다.



사모곡



당신의 품과도 같은 아늑한 밤입니다.
 당신의 손길과도 같은 평온한 시간입니다.
 가만히 소리 내어
 어머니, 당신을 불러봅니다.

감정을 나타내지 말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남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참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당신은 가르치셨습니다.

긴 긴 겨울밤의 당신의 그 긴 한숨은
 그대로 우리 몸에 녹아 들어와

오늘을 사는 지혜의 샘이 되었고
 남몰래 흘린 당신의 눈물은
 우리의 몸을 지키는
 튼튼한 사랑의 방부제가 되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교훈적이기 이전에
 깊이깊은 사랑이어야 한다.
 세상 마치는 끝 날까지
 내 아들과 내 딸을 눈물겹도록 사랑하는 것이
 교육의 전부로 알고 계셨던 당신
 어머니, 당신은 왜 우리 사 남매를
 그토록 사랑하셨습니까?

계절풍인 우리의 사랑보다
 본능적인 희생으로 시작하여
 본능적인 희생으로 끝나는
 감각 없는 아픔의 사랑으로 일관된 당신의 소원은
 이 아들의 성공일진대
 말씀은 거역한 청개구리의 슬픔을 안고
 어느 먼 이역의 거리에서
 사모곡을 부르며 흐느낍니다.



Part 2

글에 새긴
그리움,
천국에 닿다



엄마, 사랑해! 이빠! 나 사랑해?

 사랑상 김태우

이제 와 생각해 보니 잘 걷지 못하고 걸을 때마다 숨을 헐떡이는 엄마를 보면서 나는 참 무심하고 무뎠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 잘 걷지 못하면 신진대사가 힘들어지고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거늘. 오늘도 미련한 딸년은 이 애처로운 엄마가 너무도 보고 싶다. 엄마와 나 사이. 엄마가 몸져눕기 전까지는 갈등이 불거져 있는 일종의 애증의 관계였다.

나는 엄마가 신체적으로 낳은 아이가 아닌 얼떨결에 가슴으로 낳고 키우면서 끊임없이 아파했던, 한마디로 유전적인 관계의 엄마와 딸 사이는 아니었다. 가슴으로 낳았던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침해의 안개가 엄마를 가끔씩 엄습해 오면 엄마는 나를 타인처럼 밀어버리고 공격해 왔다.

“내가 왜 네 어머니? 네가 왜 내 딸이니?” 실컷 나를 향해

독설을 뿜어댄 엄마는 그러면서도 미운 정과 애증으로 범벅이 되어버린 자신을 수습하기 힘들어하곤 했다.

“엄마, 사랑해!”

엄마가 대소변을 직접 볼 수 있는 기력마저 떨어지자 이렇게 말했다.

“태우야, 나는 아무도 없잖아.”

내가 자신을 버려두고 도망이라도 갈까 봐 그런지 엄마는 전전긍긍했다. 화장실이 푸세식인데다가,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 있었기에 엄마의 대소변 오물을 처리하려면 모아서 한꺼번에 버려야 했다. 희한한 것은 엄마의 대소변 처리가 전혀 더럽거나 힘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의 모든 관심과 집중은 엄마를 어찌하면 다시 일어나게 해서 대소변을 혼자 힘으로 보러 다니게 하고 다시 걷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었다. 오로지 거기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다. 문제는, 그러는 사이에 내가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이다. 그것은 엄마가 나에게 있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이며 사랑스러운 존재 인지를 고백함으로써, 엄마에게 살아야 할 동기를 부여해 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엄마는 내가 종일 옆에 있어 주기를 바랐다. 십여 년 넘게 같이 살아온 사모예드 견종인 베클의 먹거리를 챙겨주고 병원에 오면 자신보다 개한

테 더 신경을 쓰는가 하여 섭섭한 눈치였다. 부족한 돈에 간병 아주머니를 구하자 그제야 엄마는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 것 같아서 기뻐다.

“엄마, 이빠!”

우리 집 반려견 ‘베콤’에게 습관적으로 하는 “베콤, 이빠!”라는 나의 평상시의 말에다 토를 달 듯 엄마가 나에게 물었다. “엄마, 이빠?” 엉뚱한 질문 같았다. ‘빨리 낫는 게 문제지, 그게 뭐 대수?’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반문하였는지도 모른다. 허나 틀렸다. “엄마, 이빠!”라는 말을 듣기를 엄마는 원했던 것이다. “내 엄마, 이빠! 사랑해 엄마!”

엄마의 대소변 수발 중에도 엄마의 독설은 여전했다.

“내가 왜 네 어머니? 키워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예전처럼 속이 확 뒤집어지고, 분노가 밀려왔지만 ‘지금은 엄마가 아프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참는다’ 하고 대충 마무리했다. 허나, 속이 상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병원에서 호전된 듯 보여 다시 퇴원을 하게 되었다. 허나, 다시 심부전증이 악화가 되었는지 엄마의 온몸은 퉁퉁 부어올랐다. 이동목욕에 대해 이야기하자 좋아할 줄 알았던 엄마는 죽을 때가 되었나 보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나는 애간장이 녹아내렸다. 그때 흐른 엄마의 눈물이 아

직도 눈과 마음에 선하다.

“병원~!”

엄마는 못 견디겠다는 듯이 병원을 외쳤고, 응급차로 다시 병원에 실려 갔다. 나는 임시 코로나 보호자 대기 천막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려 달라, 살려 달라 하나님께 애원했다. 우리 세 식구 건강하게 살려만 주시면 엄마를 위해 식이요법도 철저히 하고 진짜 열심히 치료하면서 기도드리겠다고 하면서 간구하고 절규했다. 그날따라 강한 바람이 야외의 임시 천막을 내리치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에 나의 적은 믿음을 걸었다. 허나, 의사들은 엄마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고, 엄마는 평소에 “절대 인공호흡기는 쫓지 마라”고 했지만 혹여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나는 인공호흡기까지 받아들이게 되었다. 코로나로 면회가 힘든 틈 사이사이 나는 엄마에게 “엄마, 사랑해!”, “엄마, 이빠! 엄마 감사해요!”라고 외쳤다.

그리고 “엄마, 나 사랑해?”라고 물었더니 엄마는 그렇다고 고개로 표시했다. 비록 육신은 무너지고 있었으나 엄마의 정신은 말짱한 듯 보였다.

나는 끝까지 적은 믿음을 포기하지 못했다. 마침내, 응급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쫓은 엄마를 보면서 말했다.

“엄마, 미안해. 못 볼 꼴 보여줘서 정말 미안해.”

코로나로 면회도 제대로 못 하게 된 만큼 찬송가도 성경도 마음껏 불러주고 읽어주지 못한 상태로 엄마와 이별하는 것이 아닝가 하는 생각에 엄마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고 싶을 정도로 마음은 슬프고 절박했다.

결국, “엄마, 나 혼자 놔두고 가지 마!!” 하면서 나는 절규를 토해냈다. 나의 이 말에 엄마는 가장 슬프게 반응했다. 그것은 세상에 저걸 혼자 두고 가려는 서러운 어미의 마음이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아니 그것은 사랑을 넘어서 이 척박한 세상에서 마음을 두고 서로 의지하고 있었던 하나의 질긴 인연의 줄이었다.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 된 우리 삼모녀 가족들. 세상의 환란과 시험 속에서 기근과 병과 죽음과 싸우다 지칠 대로 지쳐버려 서로 반목하고 원망했지만, 그래도 서로를 의지하고 마음을 두었던 내 가족이었고 울타리였던 것이다.

내 엄마는 2021년 1월 29일, 예수님의 손을 잡았다. 김성희는 의학적으로 사망했고, 김성희 권사는 하늘나라로 소천했다. 하지만 그때 나의 신앙 자체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 그리고 나의 기도 응답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엄마가 마지막 병원으로 가기 며칠 전에,

“집에 가득 찼네? 푸르고 누르스름한 청황색 말이 있네, 말

이 모두 네 마리가 있어. 흰말도 있고…”

“그런 거 쫓아내고 기도로 물리쳐.”

“태우 네가 기도로 물리쳐라” 하던 그때 그 말….

엄마를 살려달라는 애절한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고 엄마는 속절없이 떠나버렸다.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만 절대 응답 안 해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내 간절한 소원은 이뤄주시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믿음이 마구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에, 무심코 청황색 말을 인터넷 검색창에서 검색하다가 요한계시록에 말이 네 마리가 있고, 청황마는 죽음을 상징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씀에 깜짝 놀라 나는 지금도 가만히 나의 적은 믿음을 추슬러 가면서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이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 결국, 나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조차도 실패하고 말았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_ 요한계시록 6:8

납골당 비용이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드니까 화장해서 뿌리

자는 이모 덕 친지들의 의견을 뒤로한 채 내가 내겠노라며, 돈을 벌어서 앞으로의 유지비도 내겠노라며 기도원 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에다 김성희 권사 몫의 유골 봉안을 요청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구 목사님이 기초수급자의 혜택을 알아보시고 메모리얼파크 B구역 10단지 06열 개인단에 유골 봉안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나는 10년 관리비를 내고 정말 감사하게 그곳에다 김성희 권사, 우리 삼 모녀, 우리 식구들의 삶을 기념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얻을 수 있었다.

“엄마, 사랑해!”

“엄마, 이뻐! 엄마 감사해요!”

“엄마, 나를 사랑한 거 알아, 엄마도 나 알지? 엄마 하늘나라에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도와줘, 우리 삼 모녀 가족, 파이팅!”

이번 부활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원 성가대로 인도해 주셨고 나는 매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아울러 매주 언제든지 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긴 것이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할렐루야~!’



풍류가객, 성령충만 임채순 장로님!

 소망상 임혜선

풍류가객 올 아버지, 성령충만 올 아버지. 잘 계시나요?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아버지를 생각해요. 벌써 아버지가 떠나신 지 10년인데,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은 더욱 그래요. 아버지, 저 요즘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아시면 껄껄 웃으실 것 같아요. ‘임혜선, 너도 이제 내 마음 알겠지?’ 그러실 것 같아요. 저 어제도 아는 꽃집에 가서 만병초며 수선화며 미스김라일락이며 여러 가지 화분들을 잔뜩 신고 왔어요. 근데요 아버지, 지금 제가 사는 곳은 작은 주택인데요. 이전 집주인이 마당을 벽돌로 다 깔아놓아서 화단이 없었어요. 어느 날 벽돌을 걷어내고 보니 애석하게도 바닥을 온통 시멘트로 발라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방부목으로 커다란 박스를 몇 개 짜서 화단을 만들었어요. 땅 힘은 못 받아도 햇빛

과 바람은 받을 수 있으니 제법 그럴듯한 정원이 되었네요. 사과나무, 자두나무, 국도화, 거기다 제법 큰 금송, 대나무도 심었어요. 지금 마당엔 세 그루의 흰철쭉이 만개했어요. 아버지께서 보시면 다 흐뭇해하실 꽃과 나무가 제법 있네요. 아버지가 종로 5가 꽃시장에 경환이 데리고 가서서 작은 화분을 들고 올 때마다 제가 맨날 싫은 소리 했던 것,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의 고향은 이름만 들어도 눈물지으시던 산자수명한 섬진강 푸른 기슭이지요. 지금도 큰언니는 높은 산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섰고 맑은 강 섬진강에선 사철 싱싱한 잉어와 붕어 쏘가리가 뛰놀고 산지(山地)여도 논밭이 많아 쌀과 잡곡 과일까지 풍성했던 그곳, 입실군 운암면 입석리를 꿈속에서도 그리워한다고 해요. 앨범 속에 남아있는 누렁개 바랜 흑백 사진들을 보면 목선(木船) 안에서 양복을 입고 춤을 추고 계시는 젊은 아버지가 있네요. 옆에는 장구를 두들기는 또 다른 어른도 계시고요. 당시로선 근엄했을 사범학교 출신 선생님인데 어찌다 그런 포즈를 취하셨나요? 한 잔 거하게 드신 후였나요? 아버지는 학교를 벗어나면 일상이 그렇게 음풍농월하는 풍류가객이셨나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와 언니들에게 꿈만 같던 그곳을 4~5세 쯤 떠나야만 했지요. 바로 섬진강 수물민이 되어버린 비극 때문이지요. 어렸을 때 전주에서 고향 어른들이 모일 때마다

수물민, 이주권, 보상,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면 남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마냥 어둡고 음울했어요. 나라에서 맘을 세우니 물이 차서 고향 땅이 사라져버려 수물민이 된 것인데 제겐 뭔가 우리의 잘못 같은 트라우마였어요. 사실 너무 일찍 떠난 그 땅은 안타깝게도 제게 이렇다 할 기억을 남기지 못했죠. 대신 아버지의 마지막 근무지였던 신덕면의 신덕국민학교를 제 원초적 고향처럼 떠올려요. 그곳에서 보냈던 6~7세의 여러 가지 추억이 제법 또렷하게 남아있거든요.

아버지, 딸 넷의 교육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1960년대 후반, 초등교사의 월급을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겠다고 던진 사표가 평생 아버지를 무직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했지요. 저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학생 기록부에 아버지를 무직이라고 써야만 했어요. 이것은 정말 제게도 쓰린 기억이지만 아버지에게는 더 잔인한 기억이 되네요. 그 뒤로 아버지는 이것저것 일을 찾아 급기야 서울까지 진출하셨지요. 젊은 날 엄마를 만나 큰 언니를 낳고 6·25로 떠난 서울에 두 번째 오신 셈인데요, 저 중학교 때 서울이라고 아버지 찾아왔더니 산비탈 화장실에 줄을 섰던, 그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던 동네가 바로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마을이었네요. 일찍이 수몰된 고향 땅을 떠난 몇 친척들이 서울에 올라와 이 마을에 기거하던 시절이었나 봐요. 제가 부암동

으로 이사 온 후, 언젠가 인왕산 기차바위를 내려오다 개미마
을이란 이름을 보고서 호기심에 따라 내려갔는데 검색해 보니
바로 제가 중학교 겨울 방학 때 와본 마을일 것이란 생각이 들
었어요. 놀랍게도 그 시절 판자촌 산동네와 너무도 대비되어
찬란하게 보였던 유진상가가 여전히 그 아래 있었기에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너무 지난 시절 가슴 아픈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죠? 아버지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
보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를 잘 알지만 아버지의 쓰라린
내면을 처음으로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늘 경제적 무능의 대
명사처럼 아버지를 대했던 과거의 시간을 반성하는 의미로 말
이에요. 아버지, 지금부터는 제가 성령충만 임채순 장로님 이
야기를 할 것인데요. 기쁘게 들어 주셔야 해요.

언니들 다 출가하고 자연스럽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방송공사에 당당히 공채 프로듀서로 합격
하여 얼마나 다행이었던가요? 그렇지만 처음엔 아버지도 저
도 잘 이해를 못 한 직업이었죠. 방송국 프로듀서라? 무슨 판
따라?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던 아버지와 저였죠! 아버지. 그
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60세가 넘는 아버지께서 어느
날 '나 교회 다니겠다'라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간 우리 집은
아버지 빼고 다 교회에 나갔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교회에 가지자마자 시련이 시작되었죠. 바로 후두암이 찾아왔

어요.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어린 시절부터 피웠던 담배와 선
생님 시절 들이마신 분필가루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버지는 후두암을 치료하는 과정에
서 결국 목소리를 잃었고 대신 너무나도 큰 하나님을 만나셨
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가슴에 활활 타오르는 불을
내려 어디서나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뜨거운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거칠고 답답한 목소리로 여러
교회와 기도원에서 간증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나누어 주셨지요. 아버지는 목에 동그란 구멍을 내어 관을 삽
입하고 그곳으로 숨을 쉬고 말을 해야 하는 장애인이 되셨지
요. 성대가 아닌 후두를 통해 나오는 아버지 목소리를 가족들
은 알아들었지만 다른 이들은 지레 겁을 먹고 아버지께 큰 소
리로 대답했죠. 아버지, 그때 정말 많이 힘드셨죠?

아버지, 덕진제일교회에서 출발한 믿음이 바울교회에서 꽃
피운 울 아버지, 그 늦은 나이에 장로님이 되신 것도 기적 아니
겠어요? 이야기와 술과 담배를 즐기던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의 강권적 역사로 성령충만 장로님이 되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의 세 번째 서울행은 그래도 행복
한 것이었을까요? 막내딸 따라 1999년 여의도에 입성하였으니
말이에요. 여의도에서 아버지가 젤 기뻐하셨던 일은 바로 순복
음교회가 가까이 있다는 것이었죠. 믿음의 길에 들어선 이후

아버지는 늘 방송과 신앙 서적을 통해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을 흠모하셨잖아요. 제가 여의도의 장로교회에 등록하자 아버지도 함께하셨지만 새벽예배는 반드시 순복음교회로 나가셨고 대예배도 자주 가셨죠. 사실 전 그때 좀 아속했어요. 아니 딸이 등록된 교회에 함께 나가시지 왜 굳이 길 건너 한 참 먼 순복음 교회를 가시나? 그런데 아버지, 저 이제는 아버지 마음을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 돌아가신 후 순복음교회 예배에 자주 갔었어요. 그곳 대성전에 자리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코와 눈이 시큰해지며 가슴이 아파요. 아버지가 그리운 것이겠죠?

아버지, 아버지 하늘나라로 가신 지 이제 10년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모든 게 생생한 것일까요? 인간은 선택적 기억을 한다는데, 제가 다른 것은 많이 잊었는데 아버지 관련된 일들은 잘 잊히질 않아요. 평생 무직이어서 무능한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을 전 요즘 절실히 깨닫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책과 신문읽기 강조해서 저의 글쓰기 기초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제게 직장의 문도 열어 주신 것, 아버지의 공로가 분명해요. 그것만이 아니죠. 아버지는 아들도 없는 집의 넷째이자 막내딸인 저를 구박은커녕 얼마나 사랑해주셨나요? 또 아버지는 저를 100% 믿어 주신 놀라운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대해 주셨지요.

아버지의 그 믿음에 배반하지 않으려고 저는 매 순간 깨어 있었는지 몰라요.

아버지, 놀라운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진짜로 아버지 꺾꺾 웃으며 크게 기뻐하실 이야기예요. 막내 사위 김정기가 올해 저와 함께 안식년을 맞았는데 글썽 지금 옥인동 교회의 젊은 부부를 맡아 사역하는 전도사가 되었답니다. 아버지, 놀라셨죠? 남편은 원래 카톨릭 교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막내 사위가 늘 믿음의 사표로 장인어른을 이야기하곤 해요. 평생 본인 소유의 재산이라곤 하나도 없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목사님 사랑하시며 살다 간 아버지의 삶을 말이죠. 아버지, 올해 조용기 목사님도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아버지가 늘 그렇게 사랑하시던 목사님, 만나 뵈셨나요? 아버지, 늘 극진히 기도해 주신 손자 손녀도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날마다 전 아버지가 그리네요. 천국에서 다시 뵈 올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갈 수 없었던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에 조만간 가보고 싶어요. 그곳에 가면 또 아버지가 그리겠죠? 이제 긴 팬데믹의 끝이 보이는 시간이거든요.

그리운 나의 아버지! 사랑해요.

2022년 4월 25일 막내 혜선 올림



하늘나라 아내에게 보내는 봄 편지

 소망상 전상열

여보~ 재훈 엄마! 잘 있었어?

2020년 12월, 당신이 황망하게 하늘나라로 떠날 때는 엄동설한 한겨울이었는데 어느새 스멀스멀 소리도 없이 춘삼월 봄이 밀려와 버렸네.

당신과 헤어진 지 어느새 1년하고도 3개월이나 지나버렸으니 정말로 빠르고 덧없이 흐르는 것이 세월인가 봐. 당신 떠난 날 하늘에선 하얀 함박눈이 꽃잎처럼 내렸었지. 꽃잎처럼 내리던 그 함박눈들이 지금은 예쁜 꽃송이가 되어 온 천지에 바글바글 피어나 있어. 이처럼 화사한 봄이 되니 봄꽃처럼 예쁘던 당신 생각이 아지랑이처럼 아른아른 떠오른다.

여보~ 그동안 하늘나라 천국 생활에는 잘 적응하고 있어? 눈치가 빠른 당신이니 알아서 잘하고 있으리라 믿어. 하지만 아파

도 처음 접하는 생소한 하늘나라 생활에 아직도 얼떨떨해하면서 이것저것 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산더미처럼 많을 거야.

그렇지만 여보! 이제 당신 옆에는 나 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뭐든 하나하나 여쭙어 가며 씩씩하게 잘 적응해 나가길 바랄게.

전혀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나버렸던 당신! 허망하게 당신을 떠나보내 버린 후 허허로운 빈 등지에서 갈팡질팡 방황하며 보냈던 나의 지난 1년여!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동안 지내왔는지 아직도 도저히 내 마음이 정돈되지 않고 있어.

여보~ 재훈 엄마! 언젠가 남해 어느 외딴섬을 여행하면서 나누었던 우리의 약속 기억나? 500개가 넘는다는 대한민국 유인도를 죽기 전에 최대한 많이 다녀보자고 굳게 다짐하면서 우리의 버킷리스트에 추가했잖아. 아직 겨우 200개 정도밖에 다니질 못했는데 그렇게 혼자 먼저 가버리면 나 혼자 나머지 섬을 어떻게 다니라는 거야? 당신 없이 떠나는 섬 여행은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으니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만 포기할 해야겠어.

여보~ 재훈 엄마! 당신이 많이 보고 싶다.

비록 그렇게 가기 싫어하던 당신을 데리고 가신 하나님께 조금은 서운했음지는 몰라도, 힘들어하던 당신 육신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고귀한 배려라고 생각하

기로 하자.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함께 백년해로하지는 못했어도
훈훈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로 금실 좋게 잘 살게 해주
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어?

나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즐거워했던 추억이랑, 망
망대해 어느 섬 갯바위에서 파닥거리는 노래미를 낚싯대로 끌
어내며 느껴봤던 짜릿한 그 손맛도 한 번씩 떠올려 보고... 또
“할머니, 할머니” 하며 쫓아다니던 우리 손녀 예린이의 해맑은
미소도 생각하면서 이제 육신의 고통은 훌훌 벗어버리고 하나
님 품속 평안함 가운데서 환한 미소로 영면하고 있길 바랄게.

늘 그림자처럼 내 곁을 지켜주었던 당신 없이 홀로서기로
살아가야 하는 큰 숙제가 아직 나에겐 남아있지만 이제 막 초
등학교에 입학한 예린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당신으로 생각
하며 잘 견뎌볼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날, 쏠살같이 달려가 당신을 꼬
오옥 껴안아 줄 거야. 당신과의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 사랑한
다는 말도 제대로 전하질 못했는데 지금 큰소리로 천둥처럼
외쳐볼게. 여보~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나라에서 다
시 만날 때까지 잘 있어. 안녕~

2022년 4월 어느 봄날에~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이



매일매일의 삶이 당신과 함께이길

 믿음상 손현영

사랑하는 여보, 태환 오빠!

당신이 천국에 간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네요. 잘 지내고
있나요?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슬픈 일 없이
잘 지내는 거죠? 나는 여전히 옆을 보면 당신이 있는 것 같은
데... 주말이면 당신 보러 병원으로 달려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네요. 바보같이... 매일을 그렇게 당신을 그리며 살
아가는 내가 나쁜 걸까요? 당신은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란 걸 알면서도 기다리게만 되는 내가 이상한 걸까요?

나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집에서 이사해야 했고, 이런저런 일들로 부딪혀야 하는 현실
에서 헤맸고, 당신이 없는 현실에 적응이 되지 않는 시간들 속

에 지냈어요. 어떻게 버텨온 건지, 견뎠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그런데도 나는 당신이 제일 가깝고 붙잡혀요. 살아 있는 사람은 어찌 되었던 산다는 말, 죽은 사람만 붙잡혀 있다는 말들 사이에서 나는 빠져릴 만큼 그 말의 깊이를 느끼는 1년을 보냈네요.

당신이 있었더라면 더없이 빛났을 1년이었을 텐데, 우리의 새로운 시작과 계획들로 하나하나 이뤄가는 기쁨들로 매 순간을 함께하며 감사하며 보냈을 그 시간들을 뒤로한 채 현실에 맞닥뜨릴 때면 눈시울이 붉어지고 마네요. 내게는 전부였던 당신을,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한 당신이기에, 한순간도 ‘당신과 떨어져서 살 수 있을까?’ 했던 나였는데. 이렇게 덩그러니 혼자 남아 당신과의 추억과 기억을 벗 삼아 살아가고 있어요. 어딜 가든 당신과의 추억들뿐이고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당신과의 기억들로 미소 지었다가도 눈물로 하루를 마감하는 날들의 연속이네요. 나를 바라보고 있을 당신을 생각하면 울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마네요.

10년이지요. 당신과 내가 부부로 함께 한 시간이... 1년의 짧은 연애였지만 참 닳은 구석이 많았던 당신과 나였는데 말이죠. 눈빛만 봐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아맞힐 정도로, 통하는 것조차 많았던 우리였는데... 좋아하는 축구, 야구, 볼링, 어쩌면 이렇게도 잘 통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만큼, 혹시나 쌍둥이가 아닐까 싶을 만큼 닳은 부부였는데... 그런 우리가 헤어져 있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네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내 평생 당신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아니 없죠. 오직 당신뿐이었으니까요. 그런 당신을 그리워하는 게 어찌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일 테니, 그저 지금은 당신과 함께한 나날들이 주님께서 우리 두 사람에게 허락한 소중한 시간들이었음에 더없이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요.

당신이 떠나고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와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당신이 아팠을 때 시작했던 새벽기도였고 어느 순간 느슨해지며 중언부언하는 일들이 반복되며 당신을 떠나보낸 것 같아서, 부인인 내가 당신을 지켜 내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다가오고, 혼자 덩그러니 맞이했을 마지막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찢어져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잊혀서도 안 될 그 순간이 너무 마음 아파 힘든 순간에도 주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계심이 느껴져 한없이 울기도 하고 그저 감사하기만 해요.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위로는 한순간일 뿐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기에 내가 지금 붙잡아야 하고 기댈 곳은 주님 한 분뿐임을 절실히 느끼며 살아내고 있어요. 주님이 아니었다면 벌써 무너져 버렸을 텐데 그런 주님께 감사하면서도 ‘천국에 있는 당신이 주님께 나

를 부탁했구나라는 생각에 또다시 눈물이 흐르고 마네요.

추모의 글을 쓴 지도 1년이 넘었네요. 하루하루 빠짐없이 출석 도장을 찍으며 나는 내 하루를 당신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있었을 때처럼요.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네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버티고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아서, 당신을 향한 그리움과 보고픔, 그 간절함이라도 당신에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과 천국에 있는 당신이 행여나 이곳에 혼자 두고 왔다고 내 걱정 할까 싶어서... 내 안부를 전하는 유일한 우체통이니 잘 전달받아 읽어줘요. 그럼 돼요. 나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꿈에 나와 나를 만나주고 가는 당신에게 고마워요. 매일매일 보러 와 주길 바라지만 그런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잊지 말고 찾아와 주세요. 나는 언제나 당신을 꿈에서 보길 기다리고 있으니, 나 알죠? 잘 기다리는 거. 지치지 않는다는 거. 그거면 충분해요. 여보.

지금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 그곳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 이곳에서 못다 한 부부의 연 맺으며 더 많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삽시다. 그때까지만 잘 참고 견뎌보는 거예요. 약속해요. 여보!

매일매일 해도 부족한 말.

“내 전부 태환 오빠, 당신의 ‘우리 현영이’가 정말 많이 사랑하고 사랑해♡”



올해도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믿음상 이순자

올해도 아들이 예쁜 원고지를 만들어줘서 또 펜을 들었어요. 그동안 깨끗한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 온 산과 들에는 봄꽃들이 만발하여 꽃놀이들이 한창이나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새로운 변이 코로나가 발생되어 늘 마스크를 쓰며 지내는 답답한 삶이 끝없이 이어지네요.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걱정이예요. 지난번 딸네 가족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일주일을 격리하며 직장도, 애들 학교도 못 가고 고생을 하고 겨우 나왔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월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아들은 직장 동료가 감염되어 그들의 몫까지 일을 하느라고 쉬는 날도 거의 출근을 하며 지냈어요.

올해도 또 기쁜 소식이 많아요. 지난번 딸네 집에 갔더니 큰 손주 영재학교 수료증과 표창장, 둘째, 셋째 손녀딸의 표창장,

막내는 유치원생이고, 딸은 작년에 박사학위 받았고, 사위는 올해 대학교에 근무하며 '5급 행정직 A등급'으로 교육부 장관 상을 받았고 또 대학원에서 '법 이론 실무 연구'로 우수 논문상과 한국법이론실무학회 회장상까지 2개를 받았더라고요. 주옥 진열해 놓은 것을 보고 너무 기쁘고 흐뭇했어요. 아들도 방송국 차장으로 잘 근무하고 있고 친손주는 며느리와 2년 전 뉴질랜드로 유학 가서 올 1월 돌아오기로 했는데 1년 더 연장해서 내년에 돌아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들 혼자 지내는 것이 많이 걱정되고 안타까워요. 영상으로 보내오는 손주 모습을 보면, 외국인 아이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스러워요. 갖가지 운동도 열심히 아주 잘해요. 1년 더하고 돌아오면 완벽할 것으로 보여요. 늘 자녀들을 위해 새벽예배, 저녁에 1시간씩 가정 예배, 금요 철야예배 열심히 다니며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도 늘 지켜봐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줘요.

나도 21년 당신께 보낸 추모글에 입선하여 올해 책이 나왔구요. 교회에서 4차원 영성지도자 과정을 공부하여 간증 글을 써서 227명 교육생 중 1등인 대상에 뽑혀 종강 예배에 이영훈 목사님의 상을 받아서 인터뷰도 하고 교회 뉴스 시간에 방영되었어요. 상금과 상품을 받아서 아들과 식사도 했어요. 올해도 교회에서 상담학교 초급과정을 신청하여 매 주일 1부 예배

드리고 돌아와서 아침 식사 후 2시간씩 상담학 교수님 강의를 듣고 있죠. 4월 24일 종강하게 되구요, 또 열심히 듣고 소감문 쓰며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들이 트롯 가수 콘서트 공연표를 예매해 줘서 고양아람누리 극장에서 공연을 즐겁게 보고 돌아왔어요. 공연 끝나고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회사 근무 중 나와서 커피까지 시켜줘서 잘 먹고 돌아왔어요. 오늘 공연을 보며 당신도 함께 이 공연을 보았다라면 얼마나 즐거워했을까 생각하니 안타깝고 울컥한 맘이 들었어요.

무엇이 급해 그렇게 일찍이 떠나서 이렇게 아픈 맘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지 한편으론 야속한 맘까지 들어요. 그러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길을 떠나보내고 이렇게 순간순간 애를 식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암튼 늘 지켜봐 주고 앞길을 인도해 줘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요.

참, 올 1월 나 칠순이 지났잖아요. 딸네 가족과 해운대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고 아들이 저녁에 이벤트를 벌여줘서 감동했죠. 케이크 박스를 가져와서 선을 잡아당기라 하여 당기니 5만 원권으로 백만 원이 한참 동안 줄줄이 떨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참 흐뭇했죠. 당신도 함께했다면 더 기뻐할 텐데~ 예전에 내 생일이 돌아오면 한 달 전부터 달력에 표시해 놓고 기다렸다가 전날 저녁이면 딸을 데리고 나가 장을 봐서 생일을 챙겨주던 중 어느 해는 일주일 전까지 생각하고 있

다가 당일에 잊어버리기에 가만히 있었더니, 저녁에 깜짝 놀라며 “아~참” 하더니 살그머니 나가더니 그전에 교회 가다가 패물 금목걸이 다섯 돈을 소매치기당해서 없어졌던 걸 기억했는지, 목걸이를 사 가지고 와서 축하해 줬었잖아요. 지난 추억들이 떠오르네요. 이젠 당신 대신 자녀들이 잘 챙겨주고 있어 항상 고맙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튼 그 시절이 그립고 고마워요. 또 생일날 새벽에 생전에 늘 생일을 챙겨주던 당신이 몇 년 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꿈에 나타나 쌀을 가지고 왔다고 꽃다발 4개를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아파트 경비실 앞에 차를 세우고 꽃을 건네주고는 말없이 사라져 깜짝 놀라 눈을 뜨니 새벽 4시가 되더군요. 잠을 깨어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어요. 하늘에서도 오늘을 기억해줬으니 감사했구요. 암튼 고맙구요. 좋은 기억만 떠올리며 열심히 살아갈게요. 올해도 어린이집에 근무하며 조그만 용돈을 벌고 있어요. 내년에도 더 좋은 소식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며 자녀들과 열심히 바르게 살아갈게요. 잘 지켜봐 주고 늘 기도해 줘요. 또 좋은 소식 전할게요.

고마워요. 안녕히~



보고 싶은 당신에게

 화평상 이명순

70년 인생살이 무게를 살포시 내려놓고 홀연히 내 곁을 떠나 천국으로 가는 당신!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따스한 봄날이 왔지만 내 마음에 봄은 오늘도 슬픈 봄비가 되어 내리고 있네요.

여보! 우리 집 앞에 당현천 뚝방 길에는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건만 당신이 없는 봄꽃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고 매일매일이 당신 그리움으로 우울하기만 하네요. 그럼에도 살다 보면 살아는 지겠지요.

34년 전 당신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으로 생명줄을 붙잡고 견디고 있었지요. 35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편마비 장애 사슬에 묶여 병원에서 오랜 세월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당신은 불편한 몸을 지

팡이에 의지한 채 교회 다니는 일이 유일한 외출이고 낙이었죠. 당신은 늘 천국에 소망을 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서 가족을 위해, 국가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지난 가을 당신은 또다시 뇌출혈로 쓰러졌고 의식 없이 50일을 중환자실 병상에 누워 외롭게 하루하루를 견뎌냈지요. 그때 얼마나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그리웠을까요!

엄중한 코로나 상황인지라 병문안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 겨우 두 번의 짧은 면회를 했을 때, 처자식들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창백한 얼굴에 영혼 없는 두 눈을 번쩍 뜨고 눈물을 흘렸죠.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하나님! 이 불쌍한 남편 신승섭 집사에게 다시 한번 기적을 주세요”라고 절규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데... 두 번의 기적은 욕심이였을까요! 우리 가족들의 마지막 작별 인사도 온전히 전하지 못했는데~ 새해 첫날 노을이 질 때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훨훨 날아서 천국으로 떠났지요! 당신이 있는 그곳 천국은 아픔도 슬픔도 없는 낙원이기에 불편했던 장애의 사슬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멋졌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지요! 이 땅에서 못다 누린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며 잘 지내고 있겠지요!

당신과 48년 부부로 같은 울타리 안에서 살면서 때로는 티격태격하며 아프고 모진 말투로 무심하게 툭툭 던졌던 말들이 당신이 떠난 지금 내 가슴에 아픈 총알이 되어 때늦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네요. 당신이 내 곁에 있을 때 좀 더 살갑게 잘 했어야 했는데 너무나도 미안하고 큰 아쉬움이 낙엽처럼 켜켜이 쌓이고 있네요.

내가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 받고 힘겨워할 때 당신이 내 꿈속에 찾아와 집 정리를 해주고 갔잖아요. 인정이 많았던 당신은 천국에서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평평 목 놓아 울었던 밤이 생각이 나네요. 당신과 함께 한 추억들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오면 나도 세상 짐 내려놓고 당신이 있는 천국으로 달려갈 테니까 그때 우리 또다시 얼싸안고 기쁘고 반갑게 만나요. 당신도 천국에서 세 딸들과 사위들, 그리고 우리 금쪽같은 퐁퐁이 손주들! 지훈, 정우, 시윤, 서희, 지은, 고은이를 위해 잊지 말고 기도하면서 꼬옥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요!

여보!! 당신을 많이 사랑했어요!!



마지막 편지

 화평상 김혜영

‘o이즘 어머니나 o이맘마가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 영정 앞에서 열어본 어머니 핸드폰 안에, 전송을 누르지 못해 메시지 창에 그대로 남아있던 문자를 발견하고는 께이끼이 울음소리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걱정이 되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으셨겠죠. 전송 버튼이 눌린 줄 알고 핸드폰을 껐을 거고 답장이 오지 않아 섭섭해 하셨을 수도 있었겠어요.

어머님. 사실 그 문자 저에게 전송되지 않아서 저는 조금 섭섭했었어요. 바보같이 어머님 영정 앞에서 제대로 놀리지도 않아 오타 난 문자를 보고 나서야 섭섭해 한 제 자신이 한없이 밍더라구요. 아이를 둘이나 낳고 살면서도 아직도 어머님께 더 사랑받고 싶은 욕심쟁이였나 봐요.

제가 코로나를 앓고 난 후 아직 몸 회복이 덜 되어서 친정 엄마는 제 먹거리를 해다 주시고, 저는 안 좋은 몸을 이끌고 시어머님 죽을 만들어 믹서기에 갈고 또 체에 거르며 울었어요. 엄마가 해다 준 음식을 먹고 어머님 죽을 애써 만들고 있는데 힘들었어요. 몸이 아파서 힘들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할 걸, 조금 더 정성 들여 할 걸, 얼마나 후회가 되었는지 몰라요. 내가 아픈 동안 어머님은 더 아팠을 텐데 내가 참을 걸, 견딜 걸, 그릇그릇 넣어 둔 죽... 한동안 버리지도 못했어요. 제 정성이 모자라 결국은 드시지도 못하고 가신 것 같아요.

루게릭이라는 무시무시한 병명에도 늘 천국이 있으니 걱정 없다고 말씀하시던 어머님.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주시면 하나님 빨리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던 어머님. 어머님의 믿음만 존경했지, 그 믿음 깊숙이에 있던 두려움은 알아차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죽음 앞에서 어찌 두려움이 없고 천국 소망만 있었을까요, 짜장면은 싫다는 어머니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어린애처럼 어머니의 두려움을 몰라줘서 미안해요. 치료법이 없는 병이란 이유로 그 큰 병을 혼자 견디게 해서 미안해요. 아무것도 해 줄 수 없어서 미안해요.

아버님께서 10년간 누워 계실 때 어머님 기도 제목이 아버님 일어나시는 거였잖아요. 아버님은 일어나시게 하시고 어머님이 가시면 어떻게 해요. 큰아들 가족이 죄다 코로나 걸려서

10일이 넘도록 못 보었는데, 심정지 오고도 격리 해제 날까지 견뎌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 모두 어머니 손잡고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었어요. 진짜로 마지막이 될까 봐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지 못한 게 지금에 와서 또 후회가 되지만 우리 아이들 예쁘게 잘 키우겠다고 제가 약속드렸죠? 늘 제게 애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니 이 호흡기 끼고 의식은 없었지만 분명히 듣고 계셨을 거라 생각해요.

결혼 17년 동안 늘 억울하다고 생각했을 때, 못나게도 그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겼을 때 왜 어머니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지 상심하고 섭섭했던 적이 많았지만, 어머니의 빈자리를 보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이 40이 넘으면 어른인 줄 알았는데, 애 둘 낳고 키우면 어른인 줄 알았는데…

장례를 치르고 보니 이제야 한 뼘 깊어진 것 같아요. 이제서야 더욱 감사하고, 더욱 미안하고 어머니의 마음에 한 걸음 다가간 것 같아요. 장례식 내내 한 끼도 못 먹는 저를 보셨으면 ‘오이 엄마야~ 왜 아무것도 안 먹냐~’ 울먹이시는 어머니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아서 얼마나 그리웠는지, 장례가 끝나고 시택에 들어가면서 ‘어머니~ 우리 왔어요~’ 해야 하는데 못해서 얼마나 뭉클했는지… 앞으로 순간순간 더 많이 그립고

또 그리울 텐데 어쩔까요. 오이 아빠가 자면서 흐느끼며 울어요. 엄마가 보고 싶은가 봐요. 꿈에 한번 보면 좋겠대요. 한번 놀러오세요. 저희는 어머니 모신 곳에 자주 놀러 갈게요.

어머니가 평생 자식들 위해 하셨던 새벽예배, 이제는 저희가 이어갈게요. 어머니 천국에서 만나요. 거기 VIP석이죠? 저희도 어머니님 계신 그 자리로 가려면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해요. 힘낼게요! 잘 살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천국에 계신 사랑하는 나의 아버님

 화평상 신애득

아버님을 2008년 2월 28일 소망관에 모신 지 벌써 15년이 지났네요. 세월은 참 빠르게 지나갔군요. 처음 10여 년간은 보고 싶은 마음에 너무 슬프고 힘들었으나, 이제는 조금 마음이 정리되어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네요.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동생들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집안 문제로 집을 가출하시고 아버님 혼자 딸 넷을 키우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던 것을 늦게서야 깊이 깨달았죠.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이 편지에 담아 천국에 계신 아버지에게 보내봅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가 우리를 두고 떠나신 것이 다 아버지의 잘못으로만 생각되어 원망만 하느라 감사하단 말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 생각하니, 아버지께서 우리를 키우느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을지 아버지가 안 계시니 절실

히 깨닫습니다. 요즘은 가끔 마음속에 생각할 때마다 눈물만 흐릅니다... “왜 그때, 감사하단 말을 못 했을까.”

가끔 아버지가 우리를 가르치면서 생활이 힘들다고 하셔도 그 말에 그렇게 공감을 못 한 것이 지금에야 후회가 됩니다. 어린 여동생 들을 초·중·고를 다 졸업시키고, 시집 보내어 의젓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셨는데... 그 손자 손녀들은 머리가 좋아서 OO이는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하고 나라에서 보내주는 일본 유명 대학에 4년 장학생으로 가고, 손녀도 공부를 잘해서 일본 유학도 가고 졸업 후 좋은 신랑을 만나 결혼하여 잘 살게 되었어요. 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부족한 저를 신학교를 보내주셔서, 졸업을 하고 신대원까지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아버지가 도와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올해로 37년째 된 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재소자 전도사역과 장애인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아버지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떠나시고 15년, 내 나이도 70을 바라보니~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많은 시간 희생하신 일들을 더욱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떠난 것이 아버지 탓이라고 어린 시절 원망했던 모든 지난 일에 대한 잘못이 마음속 깊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지금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늘

잊지 않고 아버님을 기억하고 그 모든 희생과 수고를 늘 감사하며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용기를 낼게요. 끝까지 참고 힘써서, 삶의 승리와 하나님께 예비하시는 좋은 열매를 얻어,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 살겠습니다. 아버님, 저도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 가도록 애쓰고 힘쓰겠습니다.

우리 4명의 자녀를 너무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성격을 닮아선지, 우리 네 딸도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못했던 진심을 여기서 전합니다. “아버님의 고생하신 희생을 기억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없이 남자의 몸으로 홀로 딸 넷을 오랫동안 키워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행복하고 늘 평안히 계세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둘째 딸 드림



아버지... 어머니 조금만 늦게 데려가 주세요...

 화평상 김재광

2021년 1월 13일.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는 목에 호스를 꽂아서 말도 못 하시고 하고 싶은 말들은 종이에 메모하시면서 숨을 거두셨는데...

인생 말년에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결국 자존심 강하던 아버지께서 코에 호스를 달고 호스로 식사를 하면서 많이 눈물 흘리셨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셨지만 그렇게라도 아버지를 보내고 싶지 않았던 자식들의 욕심에 해가 갈수록 수술과 입원을 수도 없이 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코와 목에 호스를 꽂고 돌아가셨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라도 아버지와 더 있고 싶었지만 결국 자식들 욕심에 침대에서 너무 많이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아 장

례를 치르면서 많이 죄송했습니다.

아버지 가시고 맘 여린 둘째 누나는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고, 강해 보이시던 어머니도 긴장이 풀리셨는지 많이 아프고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아버지를 보내고 이제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올 무렵에 어머니 어깨가 너무 많이 아프셨어요. 병원에 가니 아버지 간병하다가 무리한 어깨 근육이 파열되어서 수술을 하셨구요.

그런데 어머니 수술 잘 받으시고 입원 중에 갑자기 뇌경색이 왔어요. 당시 어머니가 졸려서 수면제를 드셨다는 말에 그 저 졸리신 줄 알고 눕혀드렸는데, 골든타임을 놓치고 뒤늦게 서둘러 응급실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대처가 늦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싫어하셨던 그 종합병원에서 재활병원으로 가는 날... 어머니도 아버지처럼 콧줄을 하시고 재활병원으로 가셨네요. 누나들과 저는 어머니 콧줄 하던 날 다들 엄청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 생각도 나고 우리들이 무식해서 어머니가 그리되신 것 같아 한없이 울었고 죄책감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병원에 가신 지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면회 한번 제대로 못 하는 동안 어머니는 아버지가 겪으셨던 모든 과정을 겪으시면서 섬망 증상과 치매 증상 때

문에 많이 아프십니다.

아직도 자신이 병원에 있어서 아버지 식사 챙겨드리는 사람 없을까 봐 걱정하시고,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저는 결혼도 하지 않은 스무 살 대학생으로 말씀하십니다. 영상통화로 손녀를 보시면 한없이 반가워하시고 조금 있다가 저에게 며느릿감이 어디 있냐고 하세요...

어떤 모습이라도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셔서 저희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시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하며 살아오셨는데, 인생의 말년이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이제 저도 목사인데, 누나들이 어머니까지 쓰러지시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제게 질문하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너무도 보고 싶은 아버지지만 아직도 울음이 날까 봐 핸드폰에 아버지 사진을 잘 보지 못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실까 봐 매일매일이 불안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있다가 어머니를 천국에서 만나시면 안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생명이라고 목회자는 말해야 하

는데, 그냥 너무도 부족한 아들이어서 이렇게 어머니가 가실 것 같아 너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 형제들끼리 1주년 추도에 배를 드렸습니다. 다들 많이 울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조금만 주시고, 힘들어하는 어머니에게도 힘과 용기를 주세요. 저희 아버지한테는 죄송하지만 조금 더 어머니랑 있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도 그리지만, 그래서 어머니도 더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조금만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아버지, 늘 우리 자식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까지 이리되니 정말 저희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다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며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글을 새벽에 가족 몰래 쓰면서 눈물이 많이 흐릅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2022년 4월 24일, 주일 새벽에 아들이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화평상 김은영

올해 8월이면 어머니께서 97년을 이 땅에서 사시다가 천국으로 거처를 옮기신 지 3주년 됩니다. 자정 넘어 천국으로 가신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우기였습니다. 쏟아지는 폭우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은 어머님을 모시러 가는 아들의 마음과도 같았을 겁니다.

전날 임종을 예감하고 모였던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며 기운이 진하셔서 눈빛으로 하시던 말씀을 저는 다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해라”, “예수 잘 믿어라”, “호주에 간 예나는 잘 있자?”, “엄마 아빠한테 효도 많이 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서 큰 사람 돼라.”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며 눈으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벽에 걸린 예수님 그림을 한참

을 응시하셨더랬어요.

쏟아지던 폭우가 은근히 걱정되었는데 기적처럼 어머니 장례일 내내 해가 뜨거웠습니다. 평생을 기도로 사신 우리 어머니 장례식장엔 목사 사위 덕분에 많은 목사님 인사를 받으셨네요. 천국에서 행복하셨죠?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의 영정 사진을 보며 천국에서 웃고 계실 어머니 생각에 미소가 지어지니 조문객들에겐 조심스러웠죠.

저의 배우자 기도 제목 중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시어머니를 만나게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정말로 어머니께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예배를 거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새벽녘 어슴푸레 들리던 현관문 여닫으시던 소리, 그 어머니의 인기척이 지금도 들립니다. 이제는 그 문고리를 제가 이어받아 여닫고 있습니다.

한글을 못 익히셔서 천천히 성경을 읽으셨지만 몇 절씩 되는 찬송가는 다 외우셨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셔서 드리는 기도는 엄청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다 늦은 후에야 어머니께 한글을 익혀 드릴걸 하는 후회를 했습니다.

서운하신 일도 많으셨을 텐데 33년간 제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신 어머니. 친구들은 제게 그랬어요. 내숭 편다고. 같이 모시고 살면서 어떻게 시어머니 흥이 없냐고.

따뜻하고 정이 많으시고 옛날 분 같지 않으시게 사리 분별이 지혜로우신 어머니는 늘 자녀들 사랑하시는 마음이 지극하셨죠. 반쯤 열린 문틈으로 보이던 어머니의 뒷모습과 함께 들리던 기도 소리는 지금도 눈에 선하고 귓가에 들립니다.

며느리를 맞이하던 날 제가 얘기했어요. 시어머니이 내게 해 주신 것 반만큼만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며느리를 대할 때마다 어머니께서 제게 대해주셨던 것들을 떠올리며 본받으려 하지만 어머니의 선하신 성품을 닮으려면 한참 멀었어요.

그리운 어머니.

어머님을 시어머니로 만난 것은 제겐 큰 축복이었네요. 어머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예나, 호중이도 큰 행운입니다. 할머니 천국 가시는 길 배웅 못 해 드린다고 호수에 있는 예나는 며칠을 펄펄 울었대요. 예나가 SNS에 올린 글이에요.

“사랑하는 올 할머니 2020년 8월 10일 오후 11:10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다. 대한민국이 독립한 것도 보시고, 6·25도 겪으시고 험난한 세월 살아오시면서 살아생전 단 한번도 누구 원망하시거나 험담한 적도 없으시고 누구보다 맑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오신 참 존경스러운 분. 내 어린 시절의 전부인 할머니... 할머니 없인 내 유년기 시절의 삶이 설명이 안 된다. 실감이 안 난다. 믿기지도 않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눈물만 계속 흐르고 코로나 때문에 가보지도 못하고 내 상황이 참

속상하다. 많이 보고 싶은 내 할머니... 세상에선 많은 풍파를 겪으셨지만, 하나님 품에서는 평안하게 쉬시길 기도합니다.”

어머니 사랑 덕에 잘 자랐어요.

어머니 생전에 자식들을 위해 쌓아 놓으신 기도 덕에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젠 제가 그 일을 감당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제 시어머님이어서... 책상 위에 놓아둔 밝게 웃으시는 어머니 사진 보면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어머님, 천국 얼마나 좋으세요? 많이 좋으세요? 어머니는 좋으시겠어요.”

“오늘도 저희들 기억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2022년 4월 29일, 어머니를 추억하며 머느리가 올립니다.



하늘나라에선 엄마가 안 아프니까 너무 좋아

 화평상 김효진

엄마 안녕?

나야 큰딸! 벌써 엄마가 하늘나라에 천사가 된 지 두 달이 지났고, 엄마의 암이 완치된 지도 두 달이 지났네. 여기는 엄마가 좋아하는 꽃이 피는 계절이 돌아왔어. 밖에는 개나리꽃, 벚꽃, 매화꽃, 산수유꽃 형형색색의 꽃들이 활짝 피었어.

작년에 엄마가 그랬는데, “내년에는 이 꽃들 못 볼 거 같아”라고... 그때 내가 그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년도 같이 꽃구경 갈 수 있어”라구. 엄마는 어찌면 그때 이미 느끼고 있었나 봐.

계실 때 더 좋은 곳, 더 아름다운 곳, 많이 못 모시고 가서 미안해, 엄마.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엄마, 하늘나라는 어때? 여기보다 훨씬 아름답고 예쁜 꽃이 많이 있겠지? 얼마나 좋은 곳일지 상상조차 가지 않아. 엄마가 지내는 곳이 많이 궁금하지만 내가 그리 빨리 가진 못 할 것 같아. 미안~ 난 아직 여기서 엄마 뒤편만큼 지켜야 될 사람들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거든.

엄마는 두 달간 하늘나라에서 뭐 하고 지냈어? 나는 엄마가 천사가 된 두 달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엄마도 알지? 내가 매주 가서 엄마한테 알려줬잖아~ 그럴 때마다 쉬는 날이나 퇴근하고 난 뒤에 항상 엄마랑 별거 아닌 이야기로 웃고 떠들고 지내던 시간이 아쉬워지고 왜 더 많이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했을까 후회도 많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이제는 아프지 않으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어.

엄마가 안 아픈 게 최고니까! 엄마 지난 2년 동안 암 투병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어했잖아. 내가 그걸 제일 가까이서 봤고, 이제 와서 하는 얘이지만 옆에서 간병하는 나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엄마는 오죽했겠어.

엄마! 그래도 지금은 안 아프지? 엄마한테는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엄마 발인하는 날 엄마가 뜨거운 그곳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른 건 다 타서 없어지고 그나마 남아있는 엄마의 유골을 보는데 나는 마음이 참 편안했어.

‘아... 이제 엄마 몸에 더 이상 암이 없구나, 엄마가 더 이상

아프지 않겠구나, 이제 진짜 통증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비록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엄마를 만질 수도 없지만 그래도 엄마만 아프지 않으면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겠다 싶었어.

근데 사실 지금도 믿기지는 않아. 내 손으로 엄마 사망신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면서도 그냥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 같고 그래. 그냥 어딘가 살아있을 거 같은 그런 기분이랄까? 뭐 말인지 알지?

항상 내 마음속에는 엄마가 살아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항상 엄마가 그리고 보고 싶으니까 그럴 때 꿈에 꼭 놀러 와줘~ 알았지? 엄마! 내가 많이많이 사랑해!



할머니의 사랑!

 화평상 성주희

아빠!

갑자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빠는 오죽하셨을까요, 저는 감히 감도 못 잡겠어요.

제가 무슨 위로의 말을 어떻게 꺼낼지도 모르겠고 이 순간 옆에 같이 못 있어 드려서 죄송하고 마음이 안 좋네요. 하루하루 아이들 챙기고 하느라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더 깊게 오랫동안 묵상도 못 하고 툴툴 생각나면 교회에 가서 늦게까지 기도한 것이 다네요. 진작에 잘해드릴걸, 손 좀 더 잡아드릴걸, 예수님에 대해 더 말해 드릴걸, 하고 남들 다 하는 후회를 하고 있어요. 늦은 후회를...

아빠에겐 또 어머니이기에 그 상심, 제가 헤아릴 수 없네요.

병 없이 가신 것에 감사하면서도 또 할머니 사연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그래요. 장례식장에 가서 마지막 모습 보고 보내드리고 싶은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이럴 때는 멀리서 사는 것이 더 아쉬워요.

제가 생각나는 순간부터 할머니를 생각해 보았어요.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 살았던 어렴풋한 기억이 있어요.

서울에서 부동산 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인천에서 가끔 주말에 와서 놀았던 기억이요. 그때부터 기억은 더 선명해요. 어느 순간부터 옆에 수영장이 생겨서 많이 놀았죠. 그리고 밥 먹고 자동차로 집에 가면서, 한 바퀴 돌 때 할머니께서 마중 나왔던 것, 손 흔들어 주시던 기억이 있어요.

부동산 방 한쪽에 뜨거웠던 자리도 다 기억나요. 아~ 제가 아기 때, 방에서 잠이 들었다 깨서 울면 할머니께서 새벽에 저를 집에 데려다주셨던 기억도 나네요. 그리고 갑자기 이름은 생각 안 나지만 시골집으로 이사 가셔서 놀러 갔던 기억도 나요. 할머니랑 '민화투' 10원 걸고 치기도 했었지요. 할머니 방에서 일하셨던 모습, 가끔 저 혼냈던 모습까지, 그리고 할머니 서울로 이사 오시고 저 역시 대학생이 되면서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았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이 있어서 감사해요. 할머니와 추억이 더 많이 있어서요. 그때 아빠가 할머니랑 살면서 “할머니를 이해해 보자” 하시던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

네요. 할머니는 제게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 밥을 해주셨죠. 가끔 제가 늦잠 자고 나서 그냥 나가면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네가 안 먹고 가서 나도 안 먹었다”라고. 가끔 제가 늦게 오면 집 앞 편의점에서 기다렸지요. 언제 올 줄 알고.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더 놀고 싶으면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엄마 전화 오면 잘 말해 달라”고 하면 “나 보고 거짓말하라고” 하며 웃으시며 화(?)내셨죠.

가끔 비 올 때 할머니한테 감자전 해 달라 하면 항상 해주셨어요. 귀찮아하시면서도. 할머니랑 또 증조할머니랑 잠시 같이 살았던 것도 기억나네요. 다 같이 목욕탕도 가고 두 분이 티격태격하시던 것도 기억나요. 변기 막히면 혼내시기도 하고 저 벌레 잡아주시기도 하고 제 빨래까지도 해주셨네요. 할머니 덕에 일일드라마 챙겨보고 밤에는 손톱, 발톱도 못 깎고 그랬지요. 시험 기간에 늦게까지 공부하면 “네 아빠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가끔은 늦잠도 주무시고 하시는 할머니, 고구마 할머니랑 잘 노시기도 하고 앞에 앉아 담배 피우시다가 제 기억에는 어디서 듣고 “할머니 담배 끊으면 동생도 안 핀대요” 하니깐 그 이후로 안 피신 걸로 아는데요. 친구들과 먹고 포장해 온 피자도 안 드시겠다 하시고는 맛있게 드셨지요. 더 좋은 것 사드릴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유학 중 잠시 들어오면 반겨주시고, 한 번은 반질고리도 챙

겨주셨어요. 가서 필요하겠다며 주셨는데 지금까지도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그 후 많이 쇠약해지시고선 말 잘 안 드렸네요. 제 이빨 사건 때에도 할머니께 푸념 한번 했더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며 은근히 용기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아시던 할머니였지요.

이래저래 생각이 나는 대로 할머니에 대해 적었어요. 적고 보니 생각이 더 많이 나지만 후에 만나서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도 이런 마음인데 하물며 평생 같이 살아온 아빠는 더 많은 기억이 있으시겠지요. 동생과 저는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께 하는 거 보며 ‘효’에 대해 많이 보고 배웠어요. 물론 저희는 아빠가 하는 것을 배운 만큼 못하고 있지만 큰 교훈이었고 그런 아빠가 너무 좋았어요. 엄마에게 들어보니 나름 할머니께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려고 애쓰셨던데 부디 우리 할머니 천국에 가서서 예수님 만나시길 바라며 기도해요. 그럼 후에 웃는 얼굴로 볼 테니 안심하고 할머니 보내드리지는 마음입니다.

아빠! 이번 계기로 엄마, 아빠께 자주 더 연락드리고 표현하고, 가능하면 한국에 자주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아빠는 여러 문제로 더 상심이 크실 것 같고, 그 점에 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니, 계속 기도를 할게요. 나이가 들고 내 가정이 생기니 어

른들 문제에 대해서 더 이해는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포기
하지 않고 괜찮은 어른, 딸, 엄마, 누나, 아내로 살아가길 노력
할게요. 엄마, 아빠도 건강하시고 나중에 손주들의 기억 속에
추억이 많아지게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대단하신 우리 아빠, 사랑하는 우리 아빠, 지금 충분히 슬퍼
하시고 할머니 많이 느끼실 텐데... 이 시간 몸은 떨어져 있지
만, 마음은 간절히 아빠와 함께하고 있는 딸, 저를 생각하시면
서 위로받으시길 바라요.

할머니 발인하는 날, 미국에서 딸 주희 올림



봄의 단상(斷想)

 화평상 조혜경

다시 봄이 오고, 꽃은 피고 또 지네요. 예전엔 피는 꽃의 어
여쁨만 보였는데 이제는 떨어져 흩날리는 꽃들의 나지막한 이
야기가 들리는 듯해요. 지는 꽃은 다시 피지만 꺾인 꽃은 다시
피지 못한다고, 다시 피기 위한 낙화는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고...

올해 하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하빈 에미 초등
학교 입학할 때 혈관성 치매를 앓으시던 엄마는 글씨를 빼돌
빼돌 맞춤법도 맞지 않는 어설픈 글씨지만 기도하시며 “한나
와 에스더같이 슬기롭고 어여쁘게 자라고 솔로몬의 지혜를 가
지고 학교에 잘 다니거라”라고 꺾꺾 눌러 편지를 써 주셨죠.
누렇게 바랜 편지를 엄마의 낡은 손가방 안에서 꺼내 읽으며
그때 엄마의 마음이 지금 하빈이에게 주고 싶은 제 마음이라

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엄마, 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서야 그때의 부모 마음을 짐작이라도 해 보는 미련한 딸이에요.

요즘은 이어령 씨의 인터뷰를 정리한 책을 읽고 있어요. 읽으면서 문득문득 겹쳐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자식들에게 참 멋진 아버지로 기억되는... 손주들이 무언가를 여쭙으면 막힘없이 대답해 주시고, 혹시라도 미흡하다 생각하시면 집에 가서서 검색하시고 자료를 찾아서 전화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곤 하셨지요. 아이들은 그런 할아버지를 참 자랑스러워했어요.

항상 타인을 배려하셨던 아버지는 몇 년간 하루 세 번의 복막 투석을 고집스럽게 혼자 하셨지요. 투석액 봉투와 호스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묶어 놓으시는 모습에 모두 안타까워히기도 하고 감탄도 했었는데... 결국 천국 가시는 길도 아버지는 자식들도 모르게 연명치료 사전 의향을 밝히셔서 아버지답게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허망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버지의 참 바람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내외도 작년에 연명치료 사전 의향서에 사인을 하고 나오며 마치 숙제를 마친 듯한 마음이었어요.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었겠지요.

태어남도 죽음도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존엄하게 갈 수 있는 것도 축복이라 생각했습니

다. 아이들은 우리 할아버지 같은 멋진 분을 뵈는 적이 없다고 해요. 그 소리를 들으면 ‘아버지는 잘 사시다가 가셨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무엇을 살까 어떻게 꾸밀까 하는 생각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겹겹이 걸려있는 옷들, 쌓여있는 그릇, 가구들...

나눔을 시작했어요. 쓸 수 있을 때, 누군가가 필요로 할 때 나누자는 생각에 하나씩 정리하며 어깨 위의 짐들을 내려놓는 마음이었어요. 이것 또한 엄마의 모습이었네요. 물건도, 아픔도, 슬픔,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시던 엄마께 교회 청년들은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곤 했었죠. 그래서 엄마의 별명은 기도 천사님이셨지요.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갈게요. 항상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참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엄마, 아버지. 올봄엔 유난히 두 분이 더 뵈고 싶습니다.

2022년 봄에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다

 사랑상 김진주

아빠,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

아빠는 분명 천국에 있는데도 아빠가 너무 많이 보고 싶고 눈물이 나. 솔직히 사랑하는 우리 아빠를 왜 서둘러 갑작스레 데려가셔야만 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되지 않아.

하지만 십자가에서 아들을 잃어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그 슬픔을 몰라주실 분이 아님을 믿어.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이 모든 것 하나 빠짐없이 협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분이시고 아빠와의 이별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으니 이것 또한 가장 아름다운 선으로 바뀔 것임을 믿고 확신해.

일상에서 아빠의 사랑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기억할

게.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죽기까지 우릴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게. 이미 전부를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돕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고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 그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아빠에게 받았던 사랑을 넘어 더 큰 사랑 받은 자녀로 자신 있게 살아갈게.

때때로 아빠의 도움이 필요할 때,

지금까지 우릴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엔 실수가 없고 비상사태가 없으니,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던 우리의 어둠도 찬란한 빛으로 밝히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게. 우릴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해주셨기에 삶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 하나 없음을 확신해. 우린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아빠의 격려와 응원이 필요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게. 곧 다시 살아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조차 우셨던 그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헤아려 주실 거야. 우리가 흘린 눈물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따뜻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애써왔던 이 모든 시간들을 은

해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치유해 주실 거야.

아빠가 지금 당장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지금,

영원한 천국에서 우릴 위해 환호하며 응원하고 있을, 해와 같이 빛나는 아빠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그럴게.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천국과 재회를 계획해 놓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게. 다시는 아픔이 없는 그 천국에서 우리 가족 따뜻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역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맡기기에 가장 충분한 분이셨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못 이겨 낸 것 하나 없었음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할 그날을 기대하며 가슴 뛰는 삶을 살게.

아빠,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넘어서 때로는 결심이라. 지금에 이 결심이 언젠가 실재가 될 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 감사래.

나는 우리 가족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믿어.

그리고 무엇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믿고 신뢰할 거야.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그 빛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야. 아빠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10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에게엔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린 함께 웃을 수 있었고 힘을 낼 수 있었고 믿음으로 씩씩하게 살아올 수 있었어.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아빠, 우리 걱정은 하지 마.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을 부족함 없이 아름답게 채워 주실 테니까. 정말 많이 보고 싶고 소중한 우리 아빠, 이 모든 슬픔 다 지나간 후 아름다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날을 소망하며 정말 많이 사랑해! 우리 아빠!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빠에게 보내는 둘째 딸의 그림 편지

 소망상 신미진

21년 11월 11일, 아빠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엄마가 구급차를 불러서 이송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어. 정신없이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아빠 뇌의 반 이상이 출혈이 와서 수술을 해도 가망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고 응급실 침대 위에서 잠을 자듯이 누워있는 아빠의 모습에 엄마와 우리 세 자매는 아빠 옆에서 ping ping 오열을 했어.

34년 전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겨울. 크리스마스 다음 날 아빠는 회식이 끝나고 늦은 귀갓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교통사고가 크게 났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의식 없이 계시다가 정말 기적처럼 아빠가 다시 깨어났어. 그 뒤로도 1년을 아빠는 입원해 계셨고 그 힘든 시간을 엄마는 홀로 아빠 병간호하셨지.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2학년이었던 우리 세 자매는 그렇게 엄마, 아빠 없는 1년을 우리끼리 생활하면서 엄마, 아빠가 빨리 퇴원해서 우리 곁에 오기를 하루하루 얼마나 기다렸는지... 드디어 기다리던 아빠가 퇴원하는 날~!!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교통사고로 아빠는 뇌를 많이 다치셔서 몸의 반은 마비가 와서 온전히 걷지를 못해 뒤통뒤통 걸음을 걸었고, 생각하는 인지는 급격하게 떨어져서 아이 같은 말투와 행동을 보이고 시시때때로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버럭버럭 큰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어. 그런 아빠 모습이 너무 낯설고 무섭기까지 했어. 그리고 현실적인 모든 삶의 짐은 온전히 엄마와 우리 세 자매의 몫이었지. 엄마는 생계를 위해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장사를 하셨고, 우리는 부모님의 손길 없이 각자 우리가 알아서 학창 시절을 보내야만 했어.

정말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는 말처럼 너무나 달라진 아빠의 모습과 빠듯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지쳐갔고 아빠를 자꾸 외면하고 싶었어. 아빠의 존재가 무거운 짐처럼 답답하고 힘들어서 아빠가 차라리 안 계셨으면 엄마도 마음적으로 좀 편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우리도 아빠한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서 편해질 거라 생각했어. 아빠는 나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했지만

나는 솔직하게 참 나쁜 딸이었어.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 차마 아빠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 달라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나 자신이 너무 가식 같아서, 그냥 아빠가 빨리 하나님 곁에 가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어.

아빠가 쓰러지시기 하루 전날까지도 수시로 전화하는 아빠의 전화를 바쁘다는 핑계로 안 받기도 하고, 아빠 전화를 받게 되면 아빠는 자꾸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화가 나서 통명스럽게 대답하고 끊어버리기 일쑤였는데... 그때마다 항상 아빠의 마지막 말은 “둘째 딸 사랑한다! 승리!”였지...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며칠을 후회하고 자책하며 우울해 있다가 문득 아빠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났어. 아빠가 예전부터 그렇게 우리 둘째 딸 그림 잘 그린다고 좋아하고 칭찬해 주셨는데. 생각해 보니 가까운 지인들에게는 캐리커처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그렇게 해주면서도 정작 아빠를 한 번도 그려 드린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났어. 그래서 난 다시 연필을 집어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 채색까지 거의 다 완성했는데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아빠 사진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그림에서도 그 마음이 담겼는지, 아빠, 엄마 표정이 너무 어둡고 우울하게 그려진 거야.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가 평소에 그림 그리던 스타일대로 밝은 분위기의 환하게 웃는 두 분의 모습으로 그

리기 시작했어. 엄마, 아빠가 생전 입어보시지 못한 커피티도 입혀드리고 완성했지. 완성된 그림을 아빠에게 꼭! 보여 드리고 싶은데, 코로나19가 너무 심해지면서 아빠 면회도 안 되고 전혀 만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다 아빠가 중환자실에서 퇴원하고 요양병원으로 이송되는 날, 난 직장에 연차를 내고 언니랑 엄마 모시고 아빠를 만나러 갔어. 다행히 아빠를 만날 수 있었던 건 요양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였지. 직원분의 배려로 보호자가 탈 수 있게 해 주셔서 아빠 옆에 앉아서 짧은 10여 분의 시간 동안 눈을 천천히 깜박깜박 누워있는 아빠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찍은 엄마, 아빠 완성된 그림을 아빠가 잘 보이시게 눈앞에 보여드렸는데 아빠는 말은 못 하지만 분명 보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아빠의 눈동자가 그림을 향해서 잠시 머물러있는 걸 나는 알 수 있었어.



근데 아빠가 마음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둘째 딸이 처음 그려드린 아빠 그림이니까 흐뭇해하셨을 거야. 그치?

그날이 아빠 살아계셨을 때 본 마지막 모습이었어. 새해 첫날 1월 1일 우리도 없는 요양병원 싸늘한 곳에서 가족들이 임종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아빠는 홀로 하나님 품으로 가셨지.

아빠~!! 아빠가 쓰러지시고 그제야 어리석었던 나는 아빠의 시점에서 아빠를 생각하게 됐어. 힘들었던 그 세월을 아빠는 참 외롭게 살았겠구나. 가족들이 있어도 아빠는 혼자인 것처럼 얼마나 마음 둘 곳이 없이 외로웠을까.

생각해 보면 아빠는 참 따뜻하고 자식 사랑이 끔찍했던 아빠였는데. 어렸을 때 아빠가 둘째인 내가 언니. 동생한테 치인다고 나만 데리고 등산 가서 바위 위에서 노래도 불러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셨던 아빠 모습. 친구 경양식집에 가서 처음으로 세상에서 제일 맛있던 돈가스를 사주셨던 아빠. 내가 그림을 좋아한다고 어려운 형편에 엄마 눈치 보면서 퇴근길 술 한잔하시고 그 무겁던 명화 전집을 자랑스럽게 사 오셔서 “미진아~! 유명한 화가들이 그림 그림들이야. 열심히 보고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야~!” 하며 환하게 웃으시던 아빠 모습을 잊고 지냈어. 그저 사고 후 예전의 아빠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너무 오랫동안 긴 세월, 아빠에게 벽을 두고 외롭게 해

드렸던 이기적인 나 자신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미칠 것 같았어. 또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가슴을 치고 후회했어.

아빠... 아빠를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정말 못난 딸이었지만 아빠한테 너무 죄송했다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 아빠~!! 이제는 아빠를 아무리 불러도 목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아빠가 늘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에서도 매일 기도해 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어. 우리 엄마, 언니네 가족, 우리 가족, 동생네 가족 모두 꼭 지켜봐 줘~~ 훗날 아빠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나도 열심히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다가 환하게 나를 맞이해 주실 아빠 곁으로 갈게. 그때까지 아빠 행복해. 그리고 사랑해!

아빠가 사랑하는 둘째 딸 미진 올림



이스라엘에서 막내딸이 띄우는 편지

 소망상 성은주

엄마,

오늘 오랜만에 만난 어떤 사람이 엄마는 잘 계시냐고 인사 말을 하길래 잠시 망설였어. 몇 초간... '뭐라 하지?' 하다가 내가 한 말은, 히브리어로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중 내가 고른 건, 딱 100일 전에 “당신의 세상으로 가셨어요...”

엄마를 떠나보내고 침엔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내 몸이 죽은 것 같았는데 나는 점점 기운이 생기고 엄마가 그렇게 싫어 하던 겨울도 다 끝나고 여기저기 봄이 피어나고 있어. 샛노랑, 꽃분홍 꽃들이랑 초록 초록 돌아나는 나뭇잎들 사이로 엄마 얼굴이 보이다가 눈물에 다 번져버려.

엄마의 세상도 천국이니까 이렇게 예쁘겠지. 사는 세상이

달라진 게 서럽네. 엄마.

많이 보고 싶고... 고맙고, 사랑해. 엄마!

엄마, 사랑하는 엄마,

오늘 초저녁에 밖에서 봉숭아랑 비슷한 풀을 보다 엄마와의 기억이 떠올랐어. 여름이면 봉숭아 꽃물을 정성껏 우리 손가락마다 올려서 발그스레 예쁜 손톱을 만들어 주던 엄마. 그때의 따뜻하고 행복했던 온기가 느껴졌어. 엄마는 이렇게도 우리에게 수많은 사랑과 행복을 매 순간 나눠주셨구나...

그런데 나는 결혼하고 하늘이와 바다의 엄마가 되면서 절대로 엄마처럼 슬프고 가슴 아픈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그렇게 노력했어. 그래서 내 자식들과도 거리를 두고 그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어. 근데 이제 엄마를 잃고 정신 차려보니 그게 아니네. 엄마가 맞았고 내가 어리석었어. 엄마.

엄마를 왜 더 인정하고 품어주지 못했을까, 나는... 헌신과 사랑으로 키워서 엄마가 애뜻하고 가슴 아픈 게 왜 그리 싫었을까. 그런 엄마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기억이 엄청나게 많은데...

엄마, 미안해.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 봉숭아꽃으로 손톱에 물들이면서 다

시 깔깔대고 행복해지자 엄마. 그때는 엄마가 슬픔에 빠지면
내가 꼭 안아줄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려 들
지 않을게. 엄마의 선택 하나하나가 다 훌륭하다고 말해줄게.

엄마, 사랑해. 내 얘기 듣고 있지?



하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엄마

 소망상 문일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선물, 나의 엄마.

삶의 모든 순간을 정직하고 단정하며 소박하게 살아오신 엄
마는 깜깜한 새벽에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겸손히 기
도하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가족들을 먹일 맛있고 따뜻한 밥을
지으셨습니다.

그 크기조차 가늠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엄마는 그 긴 헌신과 섬김의 세월 동안 단 한 순간도 주어진
사명을 게을리 감당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연약한 몸으로 어
떠한 고난도 가족을 대신하여 몸 바쳐 기도로 싸워온 엄마는
참으로 강인한 분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삶 가운데 엄마를 지
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
렇게 엄마는 평생을 늘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좋았던 어느 날, 모든 것이 평화로웠던 그날, 엄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엄마가 없는 세상을 단 한 순간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나에게 그날은 꼭 내 생명의 끝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시간 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이른 부르심에 원망할 틈도 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의 영혼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예배를 통해 알게 하시는 그 기쁜 축제 가운데,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사랑이었는지, 내 삶에 허락된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엄마로 인하여 내가 숨 쉬며 살아올 수 있었고, 엄마가 나의 곁에 계심으로 삶의 모든 시간 행복할 수 있었음에, 엄마의 기도와 손길로 나의 삶이 이토록 빛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끝없는 눈물과 함께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삶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바로 엄마의 따뜻한 품에 얼굴을 묻을 때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참으로 편안하고 행복했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엄마도 지금 주님 품에 이렇게 안기어 계시지요?

천국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하실 우리 엄마, 엄마를 다시 만날 그때를 소망하며 이제는 슬픔을 벗어나 힘을 내보려 합니다. 엄마가 하나님과 가족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하셨듯 나도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엄마를 다시 만날 그대에, 언제나처럼 꼭 안아주시고 볼을 부비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작은 딸 수고했다.” 그 한마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사랑합니다. 나의 엄마!





남편을 그리워하는 내 마음의 강산아!

 믿음상 현기숙

당신을 잊어야 할 내 마음의 강산은 십 년이 가까워지는 지금도 어제 일같이 잊지 못하고 있네요. 뭐가 그리도 바쁘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나요? 우리 곁을 그리 빨리 떠나실 줄 정말 몰랐습니다. 당신이 천국으로 떠나신 후 슬픔 가운데 처음 느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평생 반려자를 잃고 나와 같은 처지로 똑같이 홀로 남겨진 지인들의 슬픔을 진즉 보듬어 안고 위로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8년 전 함께 저녁을 드시다 구토하며 쓰러진 후 911 앰블런스 차에 실려 집을 떠난 후 다시는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당신!

어쩌다 이방인이 되어 살았던 미국(휴스턴 갈베스톤) 바다에 뿌

러드리며 우리 아이들과 함께 목 놓아 울면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막껏 여행하시라고 슬픈 마음 달래가며 보내드렸건만 당신은 혼자 외롭게 떠나는 여행이 그리 싫으셨나요! 부서지는 파도에 밀려 우리 곁으로 자꾸 다가오는 당신을 바라보는 그때 그 심정은 순간적으로 당신 따라 함께 물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내 생의 종점을 향하여 가는 날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어가니 살아온 날보다 가야 할 나날들이 점점 임하고 있듯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니 주님 잘 섬기다 분향으로 향하는 천국의 계단을 한 계단씩 준비하며 기쁨으로 오르렵니다.

여보!

우리 두 딸은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충실히 잘 근무하고 있으며 막내아들은 미국 반도체 회사에서 각자 자기들의 몫을 감당하며 잘 지내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 주님 잘 섬기며 살다 오길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곳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엔 당신을 뵈러 자주 못 와 죄송합니다. 당신 계신 오산리 기도원 인근엔 봄이 되면 유난히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당신 만나고 돌아서서 가는 외로웠던

마음을 위로하듯 훑날리는 벚꽃 비로 몸과 마음을 흠뻑 적서
가며 집으로 돌아간답니다.

여보!!

이젠 모든 것 내려놓고 비우려 합니다.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부족한 죄인을 두 팔 벌려 맞이하실 우리 주님이 계시
오니 난 정말 행복합니다. 여보! 내 영혼은 당신이 먼저 간 천
국으로 뒤따라갈 테지만 혹여나 고장 난 육체로 인해 자녀들
과 형제들한테 본의 아니게 괴로움과 신세를 끼치거나 양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며 살아간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당신 보내드린 갈베스톤 바닷가로 날
아가 보렵니다. 여보!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당신을 그리워하는 아내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보이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걱정 마라. 잘될 거야!”

 믿음상 김인순

친정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

99세. 요양원에 계신 지 3년, 응급실에서 6일. 인공호흡기
를 떼고 이틀 만에 편안히 잠든 모습으로 숨이 멎은 것이다.
그동안 면회도 자주 하지 못하고, 특별한 날 요양원에서 코로
나 검사를 거친 후 짧은 시간 만날 때면, 어머니는 “OO야! OO
야!” 내 이름만 부르다 면회는 끝나버렸다. 청력이 약한 어머
니는 대화를 나눌 수 없고 웃는 게 다였다.

“엄마! 미안해! 이렇게 끝나버릴 줄은 몰랐어...”

외딸인 나는 지금도 웃어 줄 것만 같은 엄마의 얼굴을 보면
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장례가 끝나고, 귀가 후의 내 모습은 비참했다. 텅 빈 가슴
에 종일 주그리고 앉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시간을 보냈다. 언

젠가는 어머니가 내 곁을 떠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생명, 삶, 죽음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엄마, 난 어떻게 살아…!”

“…백 세 할머니가 죽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넌 언제나 철이 들래…?”

어머니는 그렇게 말할 것 같다.

“그래도 엄마 없으면 못 살겠어.”

“…다리 아파 누워있는 네 남편 잘 도와주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

“엄마, 모든 일이 내겐 힘에 겨워…”

“걱정 마라. 다 잘될 거야.”

그동안 잊고 있던 엄마의 철학이자 좌우명이 생각났다.

“걱정 마라. 잘될 거야!”

죽을 만큼 힘들 때, 언제나 내게 힘이 되었던 이 한마디. 이 긍정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었을까.

젊은 날, 산후 후유증으로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도 어머니는 “걱정 마라” 하셨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나는 건강을 되찾았다. 남편이 무담보 수출로 큰 손해를 입었을 때에도 “걱정 마라”고 하셨다. 무엇을 믿고 걱정 말라고 하신 것일까. 남편의 빚도 다른 수입으로 무사히 해결이 되었다.

가난하고 끼니 걱정하던 시절, 밥 한 그릇 양손으로 붙들고

오랫동안 감사 기도하는 어머니가 못마땅해, 곁에서 잠들어버려도 기도는 계속되었다. 혼자서 외식하고 돌아오면 부뚜막에는 내 밥 한 그릇이 남아 있어 외식도 마음 편히 할 수 없었다.

“엄마, 미안해.”

입 밖으로 표현한 적도 없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점점 형편이 나아지고, 내게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 언제부터인지 나도 ‘걱정 마. 잘될 거야’ 하면서 사소한 걱정거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잔소리 없는 긍정의 말은 항상 힘이 되었다. ‘걱정 마. 잘될 거야’는 신앙인의 기본자세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려는 노력도 하게 되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다. 그것은 어머니라는 절대 위치에서 오는 사랑의 힘이기도 하고,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살아가는 능력일 수도 있다.

‘걱정 마. 잘될 거야.’ 어머니를 잃고 힘들어하는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빈 가슴을 채워본다.



엄마의 봄 소풍

 믿음상 김지현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까지 눈이 시릴 만큼 아파트 주변이 화려합니다. 재작년 이맘때쯤, 등나무꽃이 주렁주렁 열린 놀이터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귀여운 손주들과 사진을 찍던 엄마.

하지만 작년엔 병실에서, 그리고 올해엔 천국에서 꽃을 즐기셨다는 사실이 못내 속상합니다. 엄마들 프로필 사진은 다 꽃이라는 말을 듣고 웃어넘겼지만, 이제는 왜 그렇게 꽃을 좋아하셨는지 이해합니다. 꽃을 볼 때마다 엄마를 추억하게 되니까요.

남들은 다 감기처럼 지나간 코로나를 왜 그리 심히 앓으셨는지, 지금도 생각해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손주들 재롱 보면서 이제 남은 인생을 즐기시는 것만

남았는데, 가 보고 싶었던 곳들 맘껏 다니시면 되는데, 하필 제일 중요한 체력이, 건강이 안 될 줄이야. 투병 순간순간 모두 다 최선의 선택을 했고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마지막에 너무 힘들어 버티지 못하신 엄마가 결국 천국으로 떠나신 날이 벌써 몇 년 전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아픈 곳 없이 편안하시지요? 먼저 천국 가신 외할아버지도 만나고 할머니도 만나고 친구분들도 만나고 계시겠죠? 사랑하는 예수님 옆에서 맘껏 찬양하시며 남은 가족들을 위해 기도로 하늘 보좌를 흔들고 계시나요? 천국에 든든한 아군이 생겼지만 그래도 좀 더 가족 곁에 계셨으면 좋았을 것들... 매번 생각해 봐도 새삼 아쉽습니다.

아직 어린 조카들이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할 때면 뭐라고 설명해 줘야 할지 아직 난감해요. 웬지 이제 다시는 할머니를 못 본다는 걸 눈치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입 밖으로 내면 무서운지 그 이상은 얘기하지 않네요. 그저 조카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도록 기도해 주면서 잘 챙겨줄 테니 엄마도 천국에서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얼마 전 '별을 캐는 밤'이라는 가곡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듣는데 어찌나 엄마가 그리웠는지... 밤하늘의 성근 별을 캐고 은하수를 엮어 꽃다발을 만들어 그대 창가에 둘 테니 창가가 환해지면 내가 왔다 갔다는 걸 아시라는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어쩌면 엄마도 이런 식으로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우리 곁에 슬쩍 왔다 가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이 빠르게 평안을 찾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 곡이었습니다.

짧은 이 세상 봄 소풍을 끝내고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간 엄마. 천국에서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는 주님만 아시겠지만, 그때까지 열심히 살게요. 나중에 천국에서 외할아버지와 엄마를 만나면 어린아이로 돌아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쁨 속에서 재잘재잘 맘껏 이야기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엄마, 사랑하고 존경해요.



우리의 선지자 엄마, 사랑합니다

 믿음상 성은숙

엄마, 엄마가 천국에 가신 지 150일이 되었어요.

몸이 약하셨지만 늘 다른 사람을 돕고 선을 베푸시면서 꽃꽂이 살아내시던 엄마. 꽃을 좋아하시고 식물을 돌보고, 죽어 가는 화초들도 살려내시곤 하셨던 우리 엄마. “내가 언제 80세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웃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81세가 되던 초여름, 엄마는 한밤중에 혼자 쓰러지셨죠. 그렇게 시작된 투병 생활. 5개월의 재활병원 치료로 빠르게 회복되면서 퇴원하셨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엄마의 병세는 조금씩, 그리고 점점 가속화되면서 안 좋아졌죠. 엄마도 우리 딸 셋도 가까이 다가온 이별의 얼굴을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힘겨운 시간이 흘러갔어요. 엄마가 아프시지만, 저희 곁에 오래 계실 줄 알았어요. 점점 안 좋아지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별을 준비하지 못한 우리. 제 나이 오십이 넘었음에도 인생을, 죽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네요.

낙상으로 병세는 더 악화되었고 우린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다시 엄마를 재활병원에 모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하루 이틀만이라도 간호하겠다고 따라 들어간 제가 차마 엄마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어 5개월여를 함께 병원에서 생활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선물 같은 날들이었죠. 엄마의 밥 세 끼를 챙기고 일거수 일투족을 다 돌볼 수 있었던 시간. 엄마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치료에 임하셨고 저는 엄마가 재활치료 받으실 때도 달려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엄마는 병원에서 제 얼굴이라도 못 보면 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몸도 마음도 힘들었던 거죠.

결국 더 이상 차도가 없었고 어느 날엔 더 안 좋아지셨죠. 그리고 집으로 간절히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게 집에서의 투병 생활이 이어졌어요. 저는 엄마 손을 잡고, 때론 누워 계신 엄마를 안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이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조금 더 우리 함께 살게 해달라고요. 엄마는 이제 천국에 가는 길만이 최선이라고 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투정을 부렸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렇게 천국 길밖에 남아있지 않은 엄마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 생각만 한 것 용서

해 주세요. 엄마가 누워 계신 침대 발치에서 울며 간절히 기도하던 날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와요.

우리가 보기엔 평소와 같던 어느 날 저녁,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엄마는 갑자기 산소 수치가 낮아졌고 응급실로 가지게 됐죠. 그리고 다음 날 오후 1시 14분, 천국으로 떠나셨어요. 밤새도록 동생이 엄마 곁을 지켰고 다음 날 아침부터 제가 엄마 곁에 있었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엄마께 저 혼자만의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응급실에서 보냈어요. 흐르는 눈물을 멈출 길이 없었죠. 정작 엄마는 말씀 한마디 못 하시고 의식이 없으셨고요, 가슴 저미는 안타까움 속에서도 고통 없이 가셨다고 하는 의사의 말이 일말의 위로가 됐어요. 그날은 엄마가 투병 생활하신 지 2년 6개월 만이었고 2022년 가을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엄마가 그토록 그리던 외할머니와 어려서 천국으로 떠난 동생이 엄마를 맞으러 나왔을 거라고 상상해 봤어요. 천국은 분명 기쁘고 아름다운 곳이겠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니깐요. 사실 엄마는 천국에 가실 준비가 이미 되신 분이었어요. 엄마가 남기신 수십 년간의 일기 노트엔 엄마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오셨는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엄마, 우리 딸 셋을 사랑과 헌신으로 키워주시고 늘 기도로

격려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그 희생을 이제야 깊이 절감합니다. 누구보다 인정 많고 사랑이 많은 엄마. 그러나 엄마의 삶은 외롭고 아픔도 많았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의 생애가 나와요. 왕족도 있고 학자도 있고 평범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의 공통된 삶의 주제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유 하나 때문에 편안한 삶은 아예 살지 못하죠. 어쩌면 엄마도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사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엄마의 희생과 보호 아래 잘 성장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연스럽게 유산으로 받았죠. 엄마의 지혜롭고 따뜻한 성품 덕분에 우리의 성장 기엔 행복했던 기억만 가득해요. 엄마는 최고의 어머니셨고 한 생애를 훌륭히 살아내신 분이예요. 그런 의미에서 엄마의 하늘나라 면류관은 누구보다 빛나는 면류관이라고 상상해 보게 돼요.

우리의 선지자 엄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눈물 없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린 회한의 눈물, 그리움의 눈물을 많이 흘려야겠죠. 엄마가 주신 이 눈물이 평생을 거두어지지 않는다 해도 기쁘게 눈물 흘리며 천국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다가 엄마 곁으로 갈게요. 씩씩하게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 증보해 주세요.

엄마,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크리스찬메모리얼과

크, 아름답고 평화로운 동산에 엄마의 유해를 모셨어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엄마도 분명 좋아하실 거라 믿어요. 엄마의 영혼은 천국에 계시지만 때론 우리가 이곳을 찾을 때 엄마도 우리와 함께 계실 거라 믿어요.

“우리 엄마, 영원한 사랑을, 가늘 길 없는 이 그리움을 당신께 바칩니다.”

당신이 처음 이 세상에 오셨던 아름다운 4월에





엄마에게

 믿음상 김미현

우리 엄마의 임종 면회는 총 세 번이었다.

원인 미상의 발열로 입원했다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HLH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난치병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를 투약하기 시작했는데 상태가 급변했을 때가 첫 번째, 2022년 4월이었다. 엄마의 의식은 있었으나 병상에서 움직일 수 없었고 말을 하기도 힘들었다. 매일 같은 피검사로 팔다리는 온통 피멍이었고 엄마는 마지막을 예상하듯 유언을 남겼다. 나에게서는 아기가 아기를 낳았다며 “예쁜 쌍둥이 크는 거 보고 싶은데…”라고 말했다. 당시 의사의 소견은 다발성 장기 부전이 진행 중이며 혈관이 약해 오늘 밤에 당장 뇌출혈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그날을 넘겼고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었다.

새벽에, 점심에, 자기 전에 매일같이 기도했다. 히스기아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도 믿음으로 나음을 받았던 것처럼, 주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다면 우리 엄마를 살려달라고 부활의 기적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했다. 기도를 할수록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이 보였고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면회로부터 이틀 뒤, 벚꽃이 바람에 하늘 높이 흩날리던 날 중환자실로 두 번째 면회를 갔다. 여전히 엄마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장기는 제 기능을 못 했고 투석도 들어갔다. 수면제로 깊은 잠에 빠져있었고 온몸에 주렁주렁 수많은 줄이 달려있었다. 우리 엄마 겁 많아서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했는데… 하지만 엄마가 일어날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그냥 그런 느낌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망가졌던 장기가 하나씩 기적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고 엄마에게 투여되던 약이 하나씩 줄어들었다. 인공호흡기는 최대 3주까지 낄 수 있는데, 20일 정도 지나고 자가호흡을 시작했다. 중환자실 의사가, 이 질병에서 다시 회복된 환자는 처음 보았다고 했다. 의식이 돌아온 엄마는 일반병실로 옮겨 밥도 먹기 시작했다. 미뤄두었던 비장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엄

마의 모든 수치가 호전되자 퇴원 이야기가 나왔다. 퇴원해도 투석은 계속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으셔서 퇴원 당일 투석도 불필요하다고 했다. 그렇게 엄마는 집으로 왔다. 꽃 피는 봄을 다 보내고 무더운 6월의 여름이었다.

약물치료로 엄마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외래를 갈 때마다 약이 줄었다. 외식도 하고 외출도 했다. 그때만 해도 나는 엄마가 다 나올 줄 알았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은 줄 알았다.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진 엄마는 폐렴에 코로나 2차, 3차까지 감염이 되고, 몸이 너무 부어서 입원했을 때 패혈증 진단을 받았다. 그 소식을 들은 게 금요일 저녁, 그리고 그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마지막 면회를 갔다.

이번에는 음압격리병동이었다. 엄마를 보자마자 이제는 이별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엄마의 손을 잡고, 너무 힘들면 이제 가도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엄마는 약 열두 시간 후 2023년 1월 11일 수요일 새벽 1시에 천국으로 떠났다.

얼마 전에 벚꽃 구경을 갔는데 딱 엄마 나이대에 엄마처럼 단발머리를 반묶음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꽃구경을 하는 사람을 봤다. 우리 엄마도 아직 살아있었다면 올봄에 가족들이랑 손주들이랑 꽃구경할 수 있었을 텐데. 나뭇가지에 연둣빛 새순

돋는 걸 보면 정말 귀엽고 예쁘다던 엄마였는데. 엄마가 정말 사랑하고 예뻐했던 동이는, 왜 개나리가 피었는데도 할머니가 오지 않으냐며 진짜 많이 보고 싶다고 한다. 너무 어릴 때 이별한 탓에 커서 할머니의 사랑과 추억이 기억나지 않을까 봐 벌써부터 마음이 아프다.

주님은 엄마를 죽음에서 한 번 건져주심으로 엄마에게는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아빠에게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세 딸은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셨다. 엄마가 투병 중에 쓴 감사일기는 내 신앙의 원동력이 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라지게 한다.

엄마, 자식에게 티는 내지 않았지만, 엄마 혼자 감내하고 있었을 죽음에의 두려움... 미처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해. 동이 보는 게 예뻐서 몸이 힘든데도 침대에 눕지 않고 거실에 나와 앉아있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할머니한테 들었어. 엄마랑 같이 얘기들 손잡고 놀러 다니던 게 꿈만 같네. 우리 엄마 해 줘서 고마워.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었는데...

엄마도 나로 인해 행복한 순간이 있었기를 바라. 자주 말은 못 했지만, 많이 사랑해. 천국에서 만나요.

심사평 2022

그리움이 모여 아름다운 성을 쌓았습니다.

(재)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의 '제6회 추모의 글'은 유례없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 곁에 홀연히 떠난 그 이별의 아픔을 진솔하게 표출해 아름답게 꽃피우고 있었다.

이번 추모상 후보작품에는 31편이 예심을 통해 전달되었고 탈락한 18편 중 세 편을 더 추가해서 총 34편의 작품을 놓고 여러 번 정독하면서 혹시라도 놓치거나 편향되지 않도록 작품성, 창의성, 가족애, 진정성, 신앙심 등에 기준을 두어 종합적인 시각으로 평가하였다.

응모된 글들은 통절하면 기도가 되듯 애잔하면서도 눈물겨운 인생살이를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었고 다시 만날 소망으로 그리운 이를 추모하는 가슴 적시는 감동의 글들이었다.

김진주의 <모든 평안과 확신과 위로의 근거>는 '아빠가 천국에 있기에'를 전제로 하고 사랑, 용기, 슬픔, 두려움, 평안, 인내할 수 있음을 열거하며 천국에서 다시 만나 찬양의 그날을 소망하는 희망적인 내세관을 담담하게 표출하였다.

전상열의 <하늘나라 아내에게 보내는 봄 편지>는 뜬금없이 다가온 이별이지만 외딴섬을 여행하는 달콤했던 추억을 되새기며 홀로서기로 꺾듯이 살아가는 한 남자의 애절한 사연이 순수하고 진득하게 묘사되었다.

임혜선의 <풍류가객, 성령충만 임채순 장로님!>은 섬진강 푸른 기슭인 임실군 운암면에서 태어난 아버지의 풍류를 추억하며 지금은 가족 생계를 책임지며 용감하게 살고 있음을 표현해 끈끈한 생명의 온기를 느끼게 했다.

그래서 위 세 작품을 우수상인 소망상으로 뽑았다.

김태우의 <엄마, 사랑해! 이빠! 나 사랑해?>는 모녀 사이는 보통 친근한 관계지만 이 둘 사이는 애증이 범벅이어서 수습하기 힘들다. "내가 왜 니 어머니! 니가 왜 내 딸이니!" 실컷 독설을 뽐어내지만 대소변을 볼 수 없이 기력이 떨어지면 "태우야, 난 아무도 없잖아!" 하는 엄마. 청황색 말을 꿈에서 보고 난 후 속절없이 떠나버린 어머니를 그리며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를 부르는 딸... 그 리움 속에서 마침내 기도원 성가대원이 되었다는 한편의 유쾌

한 소설처럼 스토리텔링이 특출하고 유머러스해서 최우수상인 사랑상으로 뽑혔다.

응모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린다.

제7회 추모의 글

심사평 2023

(재)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가 주최한 ‘제7회 추모의 글’에는 총 54편 중 33편이 1차 심사를 통과했고, 그중 김인순, 신미진, 성은주, 김진주의 글들이 아름답고 감명 깊어 우수작으로 뽑혔다.

김인순의 <걱정마라. 잘될 거야!>는 엄마의 정감 어린 말씨를 탁월한 글 솜씨로 표출한 유니크한 작품이었다. 고달픈 걱정거리에서 벗어나 잔소리 없는 긍정의 말이 일상에서는 힘이 된다. 짧고 명료한 이 한마디 ‘걱정마라. 잘될 거야’는 세상살이에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래오래 간직될 보배로운 경구라 하겠다.

천국에 띄운 두 편의 편지 또한 새싹처럼 생생한 생명의 숨소리가 담겨있어 감동적이었다.

엄마를 떠나보내고 침엔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죽을 것 같았

김선옥 심사위원

전 | KBS 라디오제작센터장, 경인방송 대표이사 전무

현 | 서울시인협회 부회장

시집 | 『오후 4시의 빗방울』, 『모과나무에 손풍금 소리가 걸렸다』, 『미지의 흰 새 알바트로스』

이우돈 심사위원

전 | 1984년 법원 공무원, 2010 법원 서기관 퇴직

현 | 1989년 시문학 등단

시집 | 『서울에 비가 내릴 때』, 『그림자』, 『더 늦기 전에』

는데 엄마가 천국에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사는 세상이 달라 보였다며 히브리어로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한 표현 ‘당신의 세상으로 가셨어요’를 되뇌었던 <이스라엘에서 막내딸이 띄우는 편지>는 봉숭아 꽃물의 추억을 더듬으며 시리고 아픈 일상을 맑고 순수한 영혼으로 승화한 작품이라 하겠다.

신미진의 <아빠에게 보내는 둘째 딸의 그림 편지>는 나쁜 딸의 참회록이자 눈물겨운 반성문이다.

아빠의 존재가 무거운 짐처럼 답답하고 힘들어서 아빠가 차라리 빨리 하나님 곁에 가시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했다는 어렸을 적 어리석었던 실수와 그 이기적인 자신이 화가 나고 너무 죄송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성찰의 순간이 진정성 있어 보였다. 그리고 아빠, 엄마의 우울한 사진을 보며 환하게 웃는 두 분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리움에 벅찬 모습이 좋았다.

최우수작 사랑상으로 뽑힌 김진주의 <우리에게겐 하나님이 있다>는 신앙을 통해 초월의 경지를 맛보는 딸의 자존감을 엮은 수작이다. 글의 마디마디에 신앙심이 우뚝우뚝 솟아 있다.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굳은 신념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신앙심으로 충만해 있는 딸의 끝없는 소망이 잔잔한 울림이 되어 읽는 이를 감동시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시간들을 은혜로운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그 빛 되신 하나님께서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_ 사무엘하 22:29

믿음이 바로 천국인 것이다.

김선옥 심사위원

전 | KBS 라디오제작센터장, 경인방송 대표이사 전무
현 | 서울시인협회 부회장
시집 | 『오후 4시의 빗방울』, 『모과나무에 손풍금 소리가 걸렸다』, 『미지의 흰 새 알바트로스』

전용선 심사위원

전 | 연합뉴스 부장, 서울언론인클럽 사무총장
현 |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CMG(주) 대표이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

천국으로 보내는 그리움의 조각들

| 세 번째 이야기 |

초판 1쇄 발행 | 2023년 6월 15일

발행인 | 신범섭

발행처 | (재)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

편집인 | (사)교회성장연구소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홀작로 164

전화 | 031-957-1260

홈페이지 | www.fgcmp.com

I S B N | 978-89-8304-069-5